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8년 9월호

리아후나



힘이 되어주는 탐: 선지자의 곁에서
봉사함, 12쪽, 18쪽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4쪽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음, 36쪽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주의를 빼앗고,
속이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우리 시대의
최대 난제는 이러한
무기들입니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구주를 떠나지 마십시오"에서, 44쪽.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로사노 모레노**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가복음 6:47~51 참조)

청년 성인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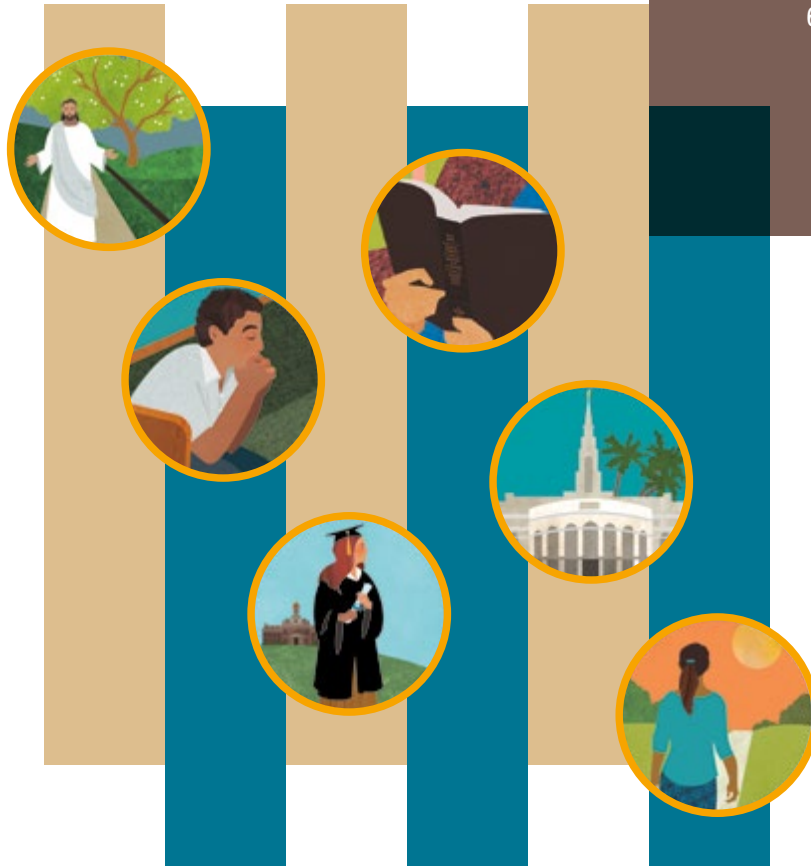
44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협력함

50, 52

청소년 공과 주제
계명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6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특집 기사

- 6** 성역의 원리: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 12**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주님의 방법을 따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뛰어난 지성,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표지

웅장한 기념비, 줄린 포먼. 브리검 영 (1801~1877) 회장은 솔트레이크 성전 동쪽에 위치한 세 개의 탑이 제일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William Ward, in "Who Designed the Temple?" Deseret Weekly, Apr. 23, 1812, 78). 현재 제일회장단의 두 개의 "탑"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에 대해 12쪽과 18쪽을 통해 알아보자.

24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참된 교회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그리스도의 교리—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26 성도들: 교회 이야기—제7장: 동역자 된 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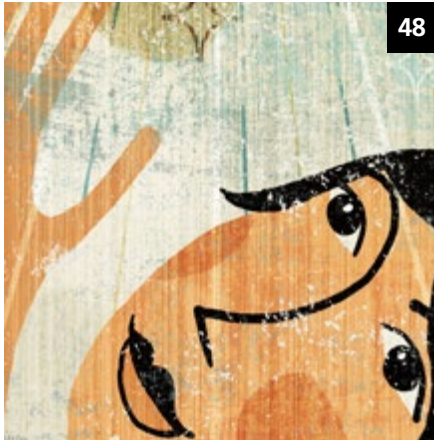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 중 침례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인도를 구한다. 주님께서는 금판에 관해 간증할 세 명을 준비하신다.

36 신앙과 가족 이야기의 힘

애덤 시 올슨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가 로잘린이 시련을 겪을 때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교회 본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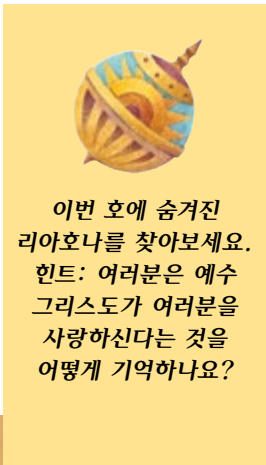
- 4** 신앙의 초상:
리볼레츠웨 고프리
목가들—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
- 10** 연단에서: 나는 나 자신이 될 거예요
유타 바움 부시
- 34** 내 연차 대회 노트: 2018년 4월 연차 대회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 있는 선지자의 인도
마크 이 피터슨 장로



48

44 구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증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48 나의 신성을 발견함
다이아네 코스 다 실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나의 개인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52

50 여러분은 안전핀 친구입니까?
머리사 위드슨
작은 사랑의 표현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울 수 있다.

52 희망의 사절: 자살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함
머리사 드니스
자살의 경고 징후와 예방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56 자금성에서 길을 잃다
세라 키닌
이 혼잡한 이국 도시에서 반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58 조셉 스미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계시
라이언 카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줬듯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60 자신의 선택의지를 위한 전투
데이비드 덕슨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를수록, 우리는 선택의지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더 완전하게
경험할 것이다.

62 우리들 공간

64 포스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65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75

66 빛을 비추라: 돌보고 나누며
저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농작물을
나누는 일을 도와드리기를 정말
좋아해요.

68 신앙, 소망, 그리고 은혜, 2부: 응답된
기도
메건 암네히트
그레이스는 나치가 아버지에 이어
집까지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70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닐 엘 앤더슨 장로

71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
노아는 어릴 적부터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72 몰몬경 독서 모임

74 무대 뒤에서 드린 기도
에밀리 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75 무슨 일이 있어도!
크리스티안 비
나는 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76 경전 이야기: 엘리야와 과부
킴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2018년 9월호 제54권, 제9호

리아호나 1475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게리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애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애드워드 듀브, 셰런 윌버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더글러스 디 홀츠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올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란시스코 올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라사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애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나, 민디 셸루, 머라사 윌슨

편집 인턴: 리아 바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벤들라,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위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시오네 이누키하야나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렛,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0호, 제55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9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널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8 Vol. 42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
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30

간증 44, 62

개인의 가치 10, 43, 48, 75

게시 26, 58, 80

교회 역사 24, 26, 58

교회 지도자 12, 18

기도 56, 63, 68, 74

모성 40

물론경 4, 22, 72

봉사 6, 42, 66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42

사랑 75

선지자 12, 18, 26, 76, 80

선택의지 60

성신 56, 58

성역 6

순종 60, 71

신권 26

신앙 24, 36, 44, 68, 76

역경 4, 36, 42

예수 그리스도 44, 60, 65,
70, 75

우정 50, 52, 63

자살 예방 50, 52

정직 79

조셉 스미스 26, 58

지혜의 말씀 41

침례 26

커뮤니케이션 6

하나님 아버지 43

리블레츠웨는 스물한 살에 시력을 잃었다.
그는 많은 것을 다시 배웠지만, 점자는 배운 적이 없었다. 경전을 읽고 싶었던 리블레츠웨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했다.

코디 벨, 사진 작가

리블레츠웨 고프리 목가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

하루는 가정 방문을 하러 간 자리에서 나는 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서 경전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점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마침 그 자매님에게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형제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신청했다. 나는 매일 점자를 공부했다. 새벽에도 일어나 점자 읽기를 연습했다. 그 결과 나는 4개월 만에 점자를 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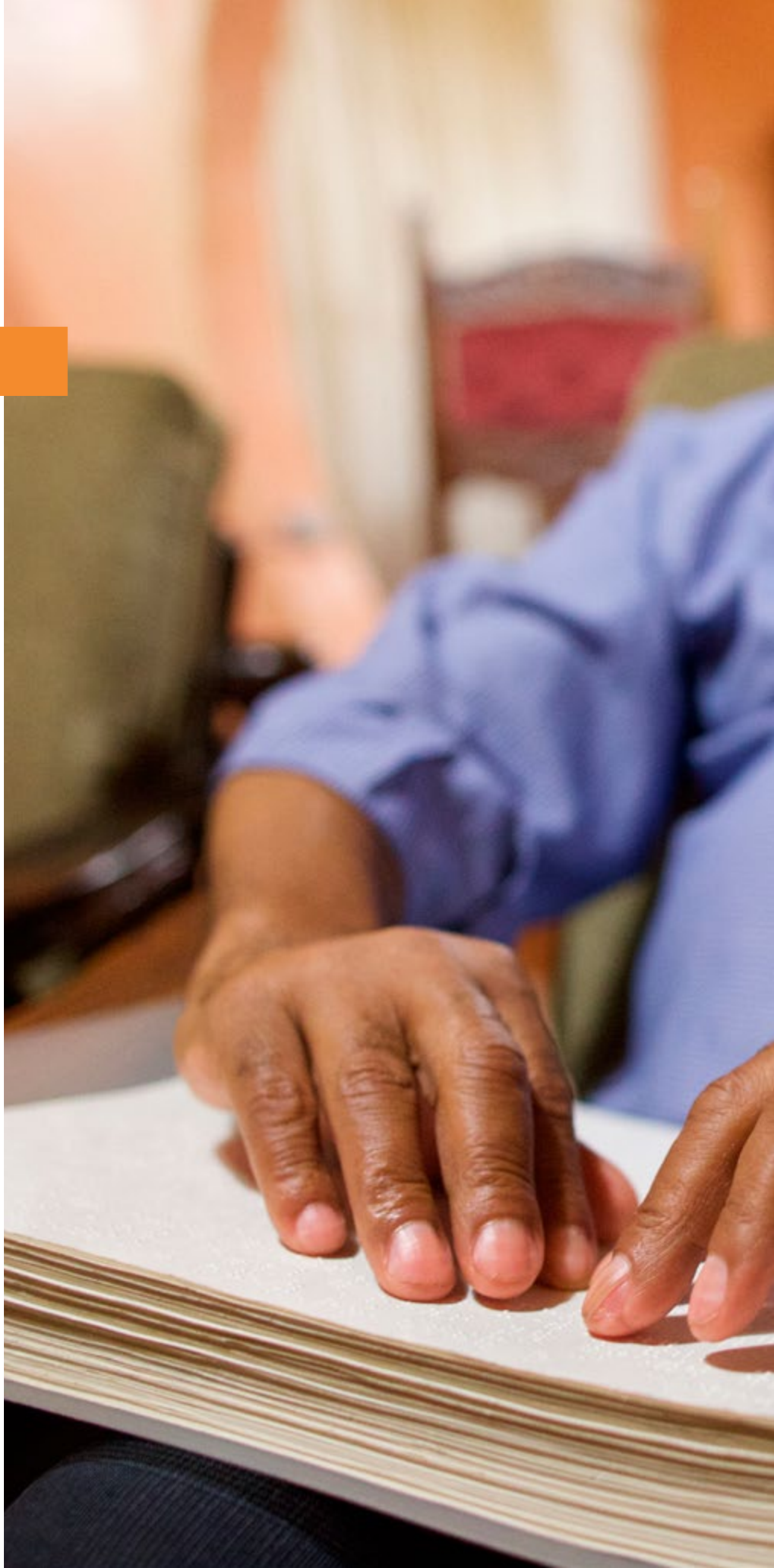
그 과정을 마친 후, 나는 지부 회장님에게 이제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회장님은 점자로 된 신권 교재와 점자 경전이 담긴 상자를 주셨다. 교회에 그런 자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다.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나는 경전이 참됨을 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배운다. 경전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다.

추가 정보

ids.org/go/9184에서 장애와 관련된 교회 자료들을 알아본다.

ids.org/go/18에서 더 많은 신앙의 초상 기사를 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성역을 혼자 다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 나님께서는 와드나 지부의 개인 또는 가족에게 성역을 베풀 때 그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행하라고 권유하셨다. 그렇다면 그들의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해 온 협의의 원리가 바로 그 비결이다.

본 기사는 무엇에 관해 협의하는가를 다룬 후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하나님 아버지와 협의하기
2. 자신이 맡은 개인 및 가족과 협의하기
3. 동반자와 협의하기
4. 동일한 개인 및 가족을 지명받은 다른 이들과 협의하기

지도자와 협의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성역의 원리 기사에서는 지도자와 협의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성역 접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더 알아볼 것이다.

무엇에 관해 협의하는가

필요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필요 사항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필요 사항 말고도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점이 또 있을까?

필요 사항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들은 정서적, 재정적, 신체적, 교육상의 어려움 및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떤 필요 사항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인다. 어떤 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야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세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성역을 베푸는 우리의 사명에는 그들이 성약의 길에서 발전하도록 돕고, 승영에 필수적인 신권 의식들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 및 가족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및 재능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개인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협의하기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점이다.(신앙개조 제9조 참조) 누군가에게 성역을 베푸라는 새로운 지명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그들의 필요 사항과 강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협의하는 것은 우리가 성역 임무를 수행하는 내내 지속해야 할 과정이다.



‘성 역의 원리’ 기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성역 방문 때 메시지로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을 보살피게 되고 그들에 대한 축은한 감정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2 개인 및 가족과 협의하기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개인과 가족을 언제 어떻게 접촉하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개인 또는 가족과 직접 협의하는 일은 관계를 맺는 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비롯한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어떤 질문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이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고려해 본다.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기 원하는지 알아본다.
- 그들의 관심 사항과 배경을 알아본다.
-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제안하고, 그들에게도 제안해 보라고 한다.

신뢰를 쌓을 때, 개인 및 가족의 필요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 본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질문한다.¹ 다음은 몇 가지 예시 질문이다.

-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그 가족의, 혹은 개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그들은 가정의 밤을 더 규칙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더욱 자립하고 싶어 하는가?
-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그들이 다음으로 받아야 할 복음 의식은 무엇인가? 그들이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을 제안할 때는 “이번 주에 언제 저녁 식사를 가져다드릴까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알려 주세요.”와 같은 모호한 제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동반자와 협의하기

여러분이 지명받은 개인 또는 가족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동반자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므로 동반자로서 함께 영감을 구하며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해 본다.

- 동반자끼리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할 것인가?
- 가족이나 개인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마지막으로 그 개인 또는 가족에 관해 이야기한 이후로 어떤 점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속삭임을 들었는가?

4 지명을 받은 다른 이들과 협의하기

동일한 개인 또는 가족을 돌보도록 지명받은 다른 이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기

칠십인인 치 홍 (샘) 윙 장로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일화를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어떻게 네 사람이 협의의 과정을 통해 중풍에 걸린 남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생각해 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윙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독님에게서 중풍에 걸린 남성의 집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와드 평의회에서 와드의 필요 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한 후, 감독님은 ‘구조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네 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그 남성을 돕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너무나도 붐볐기에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곳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들은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 즉 어떻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병 고침을 받게 할 것인가를 협의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계획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마가복음 2:4) ...

...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2:5)”²



관 계를 맺는 것 또한 협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2018년 8월호 *리아호나* 6쪽에 나온 성역의 원리 기사인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참조한다.

행하도록 권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함께 협의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께 확증을 구한 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러 나서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건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³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83쪽 참조.
2. 치 홍 (샘) 윙, “단합하여 구조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4~15쪽.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5쪽.

나는 나 자신이 될 거예요

유타 바움 부시

본 연재 기사는 *At the Pulpit: 185 Years of Discourses by Latter-day Saint Women*[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조명한다.

저는 유타주에 살게 되면서 우리가 적응해야 했던 것들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우리 와드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부름은 상호부조회 교사였습니다. 저는 다른 교사들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공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매들의 머리 모양이나 흠잡을 데 없는 복장을 통해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창하고도 매끄러운 영어는 감탄스러웠습니다. 나는 영어가 서툰데 어떻게 저들과 경쟁하며 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겠다는 열의가 충만했던 저는 스테이크에 상호부조회 교사들을 위한 준비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훈련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과를 할 때 어떤 종류의 탁자 장식물을 사용하겠다는 질문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탁자 장식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공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 와드 자매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받을 가꾸고 농산물을 통조림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자꾸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강을 하고 ... 바느질을 하고, 장보는 일도 알뜰하게 해냈습니다. 산모나 아픈 이웃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보살폈습니다. ... 성전 사업도 열심히 했고, 그 와중에 일기가 밀렸다는 걱정도 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완벽함의 모범에 기가 죽은 나머지 저도 그 자매들처럼 되고자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조강을 하지 못했거나, 먹을 빵을 직접 굽지 못했거나, 내 옷을 직접 지어 입지 못했을 때, 또 대학을 다니지 않은 저 자신에 대해 실망과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여성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생활방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실패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여섯 살 난 아이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는 친척의 질문에 “나는 그냥 나 자신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도 해 보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처럼 저도 다른 누군가가



부시 자매에 대하여

유타 바움(1935년 출생)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자랐다. 그녀는 1955년에 엔지오 부시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1958년 1월 19일 도르트문트 공립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1977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교회 지역 대표였던 부시 장로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통역을 맡았다. 대회가 끝날 무렵, 김볼 회장은 부시 장로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를 칠십인 제일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불렀다. 이 부름은 전임직이었으므로 부시 가족은 이주를 해야 했다.

그들의 첫 임지는 독일 뮌헨이었다. 그곳에서 부시 장로는 2년간 선교부를 이끈 후, 1980년에 유타주로 이주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으며, 유타는 남편과 함께 여러 지역 대회에서 말씀했다.

198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이 헌납되면서 이 부부는 성전 회장과 메이트론이 되었다. 부시 자매는 성전 봉사자로 일한 경험이 없었다. 한 훈련 세미나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부시 자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시 자매는 그 권고를 가슴속 깊이 새겼다.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도록 부탁했다.

이 메시지는 부시 자매가 1989년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되려는 노력이 거듭 실패하고 나서야
그냥 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와 경쟁하여 깊은 인상을 주고
싶고, 아니면 단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배경, 재능,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는 짐과 도전까지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 저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 공과 시간에 특별한 탁자
장식물을 놓고, 익숙하지 않은 교수법을
활용하면서 와드의 훌륭한 자매들을
홍내 내려고 했을 때 저는 실패했습니다.
영은 제게 영어가 아니라 여전히
독일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영의 인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믿어야 했습니다. ...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어딘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는 세상에 속해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여유가
생깁니다. ...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어지는 일상의
도전과 기회에 부응하느라 바쁠지라도,
우리는 단 하루, 단 일 분이라도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주님의 방법을 따르다

옥스 회장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행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1984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후,
자신이 맡은 새로운 역할과 자신의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변화를 깊이 생각했다.

사실 옥스 장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마태복음 4:18~20 참조)

1970년에 그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 달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에
응하여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직을
사임한 적이 이미 있었다. 시카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하고,
법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BYU의 8대 총장으로 봉사해 달라는
요구에 신앙으로 응했다.

그는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1984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옥스 장로는 큰 애착을 느꼈던 유타주
대법원 판사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고 다시금 떠났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달랐다.

1970년에 옥스 장로는 당연히 BYU에서
봉사를 마치면 법조계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1984년의 부름은 특별했다. 그것은

그의 온 영혼과 전 생애를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임무였다. 그가
새로 맡게 된 부름의 책임은 그 중요성 면에서 영원한 파급력이
있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히 압도적이었다.

옥스 장로는 이 중요한 전환에 대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던 이 내적 성찰의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사도가 되어야 할지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던 변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로 일했던 사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개인적인
자격과 경험에 맞추어
부름을 조정하려
하는지, 아니면 부름에
저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떠맡을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부름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따르고자 하는가?

저는 제가 받은 부름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사도의 자격과 영적인 위상에 필적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이 걸리는 도전이었습니다.”¹

주님의 신성한 은혜, 삶의 경험,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가족들, 그리고 부지런한 연구와 배움을 통해 발전시킨 개인적인 자질과 수련, 노력, 사랑을 담은 봉사 덕분에 옥스 회장은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었고, 변호사로 일했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세 자녀 중 맏이었던 델린(맨 왼쪽)은 겨우 일곱 살이었다. 그는 자라면서 몇 개월 동안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받았고, 후에는 수년 동안 홀로 된 어머니를 도왔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삶과 성역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구주에 대한 신앙

옥스 회장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영적 은사의 축복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46:13~14 참조) 그가 가르치는 구주의 교리는 명쾌하고, 그가 드리는 주님에 대한 간증은 확신에 차 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주님은 그의 빛이 되신다. 델린 에이치 옥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행한다.

몇 개월 동안 옥스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 지닌 목적과 중요성, 구주의 속죄, 신권의 권세와 열쇠, 성스러운 성찬 의식,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과정,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 또한 기타 수많은 복음 원리를 교회 회원들이 더욱 온전히 이해하도록 오랜 세월이 걸쳐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의 간단하고 정연한 복음 학습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해 왔다.



고결성

옥스 회장은 고결한 사람이다. 그의 신앙과 행동은 복음 원리에 기초하며,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생활한다.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므로 그는 절대 편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설사 그 행동이 자신의 평판이나 견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의 인생에는 지름길이란 없다. 일을 제대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어려운 문제와 임무를 대하는 그의 의지를 보면 그의 고결성이 잘 드러난다. 그는 또한 능수능란하게, 즉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 전통 가족 옹호, 종교 자유의 위협에 대처하기, 성인들의 이기적인 죄로부터의 아동 보호, 외설물이라는 악에 대한 비판과 같은 주제에 대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쳤다.

온유함

옥스 회장이 이룩한 개인적 및 사회적인 성취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탁월하다. 그러나 성신으로부터 배울 때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울 때든 옥스 회장은 항상

옥스 회장과 세상을 떠난 그의 부인 준은 2남 4녀를 두었다(이 사진을 찍은 후 막내가 태어났다).

델린 옥스는 라디오 아나운서 및 송신기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대학 1학년 때 고교 농구 경기를 중계하던 중에 준을 만났다. 그들은 1952년에 결혼했다.



온유하게, 영적으로 배움을 받아들인다.

한 번은 정원회 모임 중에 옥스 장로가 자신이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어떤 행동 방침에 대해 강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가 명확히 제시한 이유들은 설득력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조예는 상당했다. 그 행동에 찬성하는 그의 주장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함께 협의하는 동안, 선임 순서가 상당히 낮은 십이사도 한 사람이 그 행동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도 제안된 시기에 대해서는 주저함을 보였다. 옥스 장로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형제님보다 경험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그 우려를 일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금도 화를 내거나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 옥스 장로는 다만 그 정원회 회원에게 “시기에 관해 주저하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부탁했다.

옥스 장로는 동료 사도가 하는 말을 열심히 경청했고, 잠시 숙고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방금 제기하신 요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님이 제기하신 대로 이 행동 방침의 시기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눈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을 기초로 그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스 장로는 동료 정원회 일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서 배운 다음,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었다.(교리와 성약 19:23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는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을 주제로 삼는다.

분별력

옥스 회장이 또한 축복으로 받은 영적 은사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제안이나 결정 및 행동이 빚어내는 장기적인 결과를 알아보는 능력이다. 이러한 역량은 그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에서 나타난다. “이 일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² 누구든지 옥스 회장과 평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해 본다면, 그가 평생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이러한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족 및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해 주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어느 여름날 밤,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에서 옥스 회장은 주차된 자신의 차로 돌아오는 길에 무장 강도와 맞닥뜨리는 무서운 일을 겪었다. 그의 아내 준은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 내놔.”

“돈이 한 폰도 없소.” 강도의 요구에 옥스 형제는 빈 지갑을 보여 주며 대답했다.

“그럼, 차 열쇠라도 내놔.” 강도가 명령했다. 열쇠는 옥스 자매가 있는 잠긴 차 안에 있었다. “문을 열라고 해.” 옥스 형제는 강도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강도는 계속해서 위협했다. “열라고. 안 그러면 당신을 죽일 거야.”

옥스 형제는 단호했다. “하지 않겠소.”

강도가 요구와 위협을 반복하는 동안, 옥스 형제는 청년에게서 총을 뺏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옥스 회장은 1992년 연차 대회 말씀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총을 빼앗으려던 그 찰나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총을 잡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과정에서 제가 청년의 가슴에 총을 겨누게 될 것이고, 총이 발사되어, 그가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동안 그 젊은이의 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³



연대표

1932년: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서 출생

1949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유타주 방위군에 입대

1952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준 덕슨과 결혼

1954년: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 회계학 전공

1957년: 시카고 대학 법학대학원 졸업

1957~1958년: 미국 대법원장 얼 워런의 서기로 근무

1958~196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함

1961~1970년: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률을 가르침

1971~1980년: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1980~1984년: 유타주 대법원 판사로 재직

1984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음

1998년: 6명의 자녀를 두고 준 덕슨 옥스가 별세함

2000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크리스틴 엠 맥메인과 결혼

2002~2004년: 필리핀 지역 회장으로 봉사함

2018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받음



기적처럼 나타난 이 분별의 은사 덕분에 옥스 회장은 그 대결 국면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숨과 젊은 강도의 목숨을 구했다.

더 최근의 일로, 당시 옥스 장로가 의장을 맡고 있던 선교사 집행위원회 모임에서 우리는 세계 특정 지역에서 봉사 중인 선교사와 관련된 제안에 관해 함께 협의한 적이 있다. 모든 평의회 회원이 그 문제에 관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 후, 옥스 장로는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자신이 배운 내용을 요약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지금 당장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결정을 유보하라는 영감은 몇 달 후에 생긴 일들을 통해 극적으로 부각되었다. 옥스 장로의 영감받은 지도력을 따른 평의회는 올바른 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선교사를 보호하고 주의 일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

유머 감각과 친절

옥스 회장에게는 유쾌한 유머 감각이 있다. 한 예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모두 참석한 오찬이 끝날 무렵 한 형제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즐겼으니 오후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 있기가 어렵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에 옥스 회장은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잠자기 좋은 장소를 못 찾는 경우에만 그렇지요.”

그는 종종 장난스럽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대머리를 웃음거리로 삼는다. 그러면서 그는 또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강력한 대변인 노릇을 자청하기도 한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은 항상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재치는 정답다. 그는 한결같이 사려 깊고 친절하다. 사람들은 보통 옥스 회장과 만나고 나면 그의 유머 감각과 진실한 사랑, 배려하는 태도로 그가 그들을 편하게 해 주어 정말 좋았다는 말을 한다.

의로운 여성들의 영향

자신의 놀라운 삶에서 얻은 모든 업적과 찬사와 관련해서, 옥스 회장은 세 명의 의로운 여성들, 곧 스텔라 해리스 옥스, 준 딕슨 옥스, 크리스틴 엠 맥매인 옥스가 자신의 인생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음을 가장 먼저 인정한다.

델린 옥스는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사였던 그의 부친 로이드 이 옥스는 결핵으로 36세에 사망했다. 그는 옥스 회장의 모친인 스텔라 해리스 옥스와 결혼한 지 11년째 된 기념일에 땅에 묻혔다. 옥스 회장의 모친은 여생을 홀로 지내며 세 아이를 길러 냈다.

옥스 회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비범한 어머니를 모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후일에 살았던 많은 고귀한 여성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⁴

옥스 회장은 BYU의 신입생이었을 때 준 딕슨을 만났다. 그들은 1952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준이 제 인생에



나타나기까지는 전 최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의 상당 부분은 그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⁵ 1998년 7월 21일, 준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준과 델린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의 앞날을 논의했다. 그들은 재혼이 델린과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2000년 8월 25일, 옥스 장로는 크리스틴 엠 맥매인과 결혼했다.

크리스틴 옥스는 옥스 회장과 함께하는 생활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서 하나이며, 이를 통해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자주 가족 모임을 갖는다.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준의 이야기는 언제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할 때, 옥스 회장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는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남편인] 아버지와 [아내인]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⁶ 옥스 회장은 꾸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방법을 따르며 가정생활을 해 왔다.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겨 주는 것으로 유명한 옥스 회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성역을 베풀고 복음을 나누어 왔다.

왼쪽: 옥스 회장과 현재 부인 크리스틴이 2018년 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에서 가족을 연결하는 방법에 관해 말했다.

주

1. Dallin H. Oaks, *The Lord's Way* (1991), 7.
2. See Dallin H. Oaks, "Where Will It Lea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9, 2004), speeches.byu.edu.
3. 델린 에이치 옥스,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37~40쪽.
4. Don L. Searle, "Elder Dallin H. Oaks: 'It Begins by Following the Other Apostles,'" *Ensign*, June 1984, 14.
5. Dallin H. Oaks, "The Student Body and the President"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9, 1975), 6, speeches.byu.edu.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7. See Dallin H. Oaks, "The Dedication of a Lifetime"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1, 2005), 2, broadcasts.lds.org.

평생의 헌신

2018년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제1보좌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2보좌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각각 지시받았다.

옥스 회장은 “평생 동안의 평온하고 한결같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정원회를 감리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한다.⁷ 옥스 회장의 개인적인 제자 됨과 강력한 가르침, 한결같이 의로운 모범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힘이 되어 줄 것이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뛰어난 지성,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삶과 성품의 다채로운 면모는 때로는 대조적이면서도 순수한 모습을 보여 준다.

최 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순수한 동기’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로 부름을 받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제2보좌를 만난 적이 있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말에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할 아이어링(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항상 이렇게 불렀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측면은 매우 순수한 덕성으로 오랫동안 드러났으며, 단 하나의 ‘순수한 동기’를 일관되게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동기란 말과 행동 면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아이어링 회장의 방법은 그 과제 자체만큼이나 명확하고 단순하며, 그러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도전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80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그는 거의 모든 대화, 모든 행정상의 결정, 혹은 그가 발표하는 모든 공식 선언에서 그가 언급할 하늘의 동반자, 즉 성신의 인도를 진지하게 구하고 성신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행하지 않고자

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에게 성신과 함께하는 것은 곧 해의 영광에 이르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을 지녔다는 표징이며, 그의 뛰어난 영적 순결의 증거이다.

반어적이게도 그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대조적인 면모는 오히려 그 삶의 순수성을 훨씬 더 두드러지게 한다. 노벨상 후보인 화학자에게서 태어나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할은 처음에는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손을 댔지만, 결국에는 아이어링가의 전통에서 동떨어진 경영학자의 길을 택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얻었는데도 그와 그의 아내 캐슬린은 결혼 생활 내내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는 (자녀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로는) 가끔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수준이었다. 할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고, 다른 대학에서는 전임 교수로 재직하고, 세 번째 대학에서는 객원 교수를 지내는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육계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런 그가 잘 알려지지 않은(적어도 그의 하버드, 스탠퍼드, MIT 동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리스 컬리지라는 2년제 대학을

왼쪽: 미국 뉴저지주에서 자라면서 어린 헨리(그의 어머니 옆에 앉아 있음)는 주변에 교회 회원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간증을 얻었다. 13세 때 아버지가 유타 대학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서 할과 가족은 유타로 이사했다. 헨리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이스트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말기 위해 학문적 인지도와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떠났다. 심지어 그는 그 학교에 한 번도 가 본 적도 없었고, 학교가 있다는 미국 아이다호주 렉스버그라는 도시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순수함과 대조성은 계속되었다. 비범한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어링 회장은 영적인 결과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재능이나 정신적 판단력에 의존해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필요하다면 담대함이라는 말의 최대치만큼 담대하고, 흔히 말하는 힘의 정의 이상으로 강하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과 아이어링 회장의 자녀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행동 방침을 선택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나 사람 누구라도 위협에 빠뜨릴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¹

헨리 비 아이어링의 영혼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순수함과 대조성을 요약해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는 이 놀라운 사람의 고결성이다.

한번은 와드에서 하는 성찬식의 정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어링 회장이 성찬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는



1933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출생

1955년: 유타 대학 물리학과
졸업

1959년, 196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1962년: 유타주 로간 성전에서
캐슬린 존슨과 결혼

1962~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경영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1971~1977년: 리스 컬리지
총장으로 재직

1980~1985년: 교회 교육
총감으로 봉사함

1985년: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받음

1992년: 칠십인 제일정원회에
부름받음

1992~2005년: 교회 교육
총감으로 봉사함

1995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음

2007년: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받음

2008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받음

2018년: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받음

그런 친절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자신의 와드
감독에게 긴급히 전화를 몇 통 걸어 허락을
구했다. 물론, 감독은 기꺼이, 그리고 친절하게
요청을 들어 주었다.

내가 이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물론 그 교훈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감독에게 허락을 구한 이 사람은 교회
제일회장단의 일원이다. 안수받은 사도이자
인간이 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미국 유타주 바운티폴에 있는 자신의
와드 감독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의 모든 신권 지도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지역 지도자의 열쇠에 그의 열쇠를 더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서
종종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드러나는 순수함과 사람들이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이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평신도 회원들을 위한 의례를 양심적으로
따른 것이었다. 즉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겸손히 청원하고, 지역 지도자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결정을 기꺼이 따른 것이다.

신앙의 뿌리

아이어링 회장의 신앙이 보여 주는 그 풍부한
영성과 명백한 순수성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33년 5월 31일에 헨리와 밀드레드 베니언
아이어링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헨리 1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지만,
할이 자란 지역은 교회 회원수가 너무 적어서
안식일 모임을 아이어링 가족의 집에서
해야 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나중에
자신과 남동생 하든이 지부 초등회의
전부였으며, 형인 테드가 청남 전체
프로그램을 채웠다고 농담하곤 했다.

그들의 어머니 밀드레드는 반주자이자 음악
지휘자였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 두 가지를 다
해냈는지 그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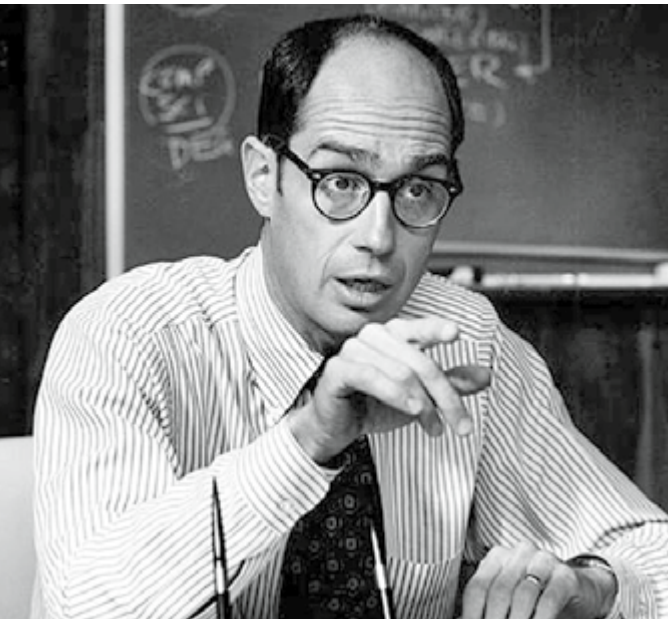
큰 와드에서 예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이 간증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저는
교회란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꼈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부가 저희 집
주방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이 열세 살 때, 그의 아버지는 유타
대학교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어린 할은 새벽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뛰는 즐거움을 맛보긴
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를 사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중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네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너는 시간을 더 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때 받은 영의 속삭임에 따라 십 대 시절에 여러 번 물몬경을 읽었다. 그는 또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저서 *Gospel Ideals*[복음의 이상]을 통해 인도를 느꼈는데, 그 책으로부터 다른 많은 것과 더불어 여성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과 나중에 그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아내 캐슬린에게 보일 헌신을 배웠다.



왼쪽: 아이어링 회장은 릭스 컬리지(현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의 총장으로 재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에는 스탠포드 대학 경영 대학원의 교수진으로 있었다.

위: 아이어링 회장과 그의 아내 캐슬린은 4남 2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꿈이 실현되다

어린 시절부터 할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담아 두고 있었던 꿈은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장차 얻게 될 자녀들을 정말 자주 생각했고, 그 결과 자신의 어머니처럼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을 상상하며 “빨강머리들”이라는 별명을 진작부터 붙여 두기도 했다.



이 꿈은 보스턴 지역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아 봉사하는 동안 비로소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할은 당시 유타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1960년 여름, 할은 미국 뉴햄프셔 남서부의 지역 명소인 파인즈 대성당이라는 야외 원형 극장에서 열린 독신 성인 영적 모임에 지방부 회장단 대표로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그는 빨간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을 보았고, 그녀가 발산하는 순수한 선량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여생을 그녀와 함께한다면 늘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젊은 여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온 캐슬린 존슨으로, 그녀는 원래 그해 여름 동안 뉴잉글랜드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친구에게 떠밀려서 그 친구와 함께 하버드에서 여름 학기를 수강하고 있었다. 할은 야외 영적 모임 이후 어느 일요일에 교회에서 캐슬린을 만나기로 했고, 그녀가 테니스를 즐긴다는 소리에 기뻐했다. 할은 대학 친구와



주중에 여러 차례 테니스를 치고 있었고, 타고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테니스를 친다면 첫 데이트로 이상적인 데다 그녀에게 멋진 인상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캐슬린이 미리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에 테니스팀 주장을 지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그녀에게 완패했죠.” 할은 아직도 그 경기에 대해 투덜거린다. 이것은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의 남편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의 첫 번째 예였다.

새로운 길

결혼 후에 할이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 대학 교수직에 최종적으로 임명되고, 아직 팔로알토의 학생 와드 감독에서 해임되기 고작 몇 달 전인 1970년 12월 어느 날, 캐슬린이 밤에 난데없는 질문을 던진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려던 할에게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직업적인 면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1995년(위)에 사도로 부름받은 아이어링 회장은 세 명의 교회 회장, 즉 고든 비 힙클리(오른쪽), 토마스 에스 몬슨, 그리고 현재 러셀 엠 넬슨의 보좌로서 봉사해 왔다.

오른쪽: 아이어링 회장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12년 유타주 개척자의 날 기념 퍼레이드(Days of '47 Parade)에서 총지휘관으로서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확신해요?”

그는 아내의 질문에 놀랐다.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장래는 밝고 확실해 보였고, 최근에 할이 자신의 일지에 구상해 놓은 아이어링 가족의 이상적인 집마저도 그랬다. 거기에는 “작업을 할 만큼 크고 카약을 보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작업실”, “부엌 탁자 옆에 최소 다섯 개의 전기 콘센트”,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별채나 목욕탕” 등의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이 아내에게 물었다.

“널 맥스웰 형제님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교회 교육 총감을 언급하면서 그녀가 말했다. 이 말에 할은 진정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닐 에이 맥스웰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가 알기론 캐슬린은 전혀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직업적인 변화가 왜 그에게 잘 맞지 않을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내는 그 문제에 관해 적어도 기도는 해 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즉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짧게 기도를 드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할은 그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여기며 곧 잠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할은 자신의 직업과 인생

경로를 영원히 바꿀 두 가지 뚜렷한 영적 느낌을 받는다. 그는 일지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기록했다. 첫째,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에게 온 기회를 버리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그것에 관해 기도한다.” 둘째, “교회와 직장에서 받은 임무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한다. 그것이 준비이다.”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은 할이 그 이후로 영원히 따르며 살아가야 할 다소 책망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 전에 직장 문제로 세 번이나 다른 제안이 왔었지만, 기도도 해 보지 않고 그 제안들을 거절했던 그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왔다. “그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라. 너는 직업적으로 너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영적 가르침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한 후, 3주가



지나기도 전에 맥스웰 총감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를 만날 모임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맥스웰 형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제님이 리스 대학의 총장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할은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가 받은 간절한 대답은 ‘이 학교가 내가 일할 곳이다’였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두가 아는 그대로이다. 그 후로 그는 교회에서 교육 기구 부총감에 이어 교육 기구 총감(2회), 감리 감독단, 칠십인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세 명의 교회 회장의 보좌로 봉사함으로써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할은 참으로 교회 부름에 경중을 두지 않는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삶의 각 시기마다

존재하는 스트레스는 구주를 섬기라는 부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집사 정원회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저의 삶과 제 가족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집사들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²

마지막으로 언급할 그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친구인 헨리 비 아이어링보다 더 분쟁에 반대하고 폭력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유타 대학에서 그의 기수 중 최우수 학사 장교 훈련단 후보생으로 졸업했고, 미국 공군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국가를 위해 복무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한다면(사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평의회에서 시작된 전쟁에 참전 중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질색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만일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지도자가 명확하게, 심지어는 명석하게 생각하고, 모든 전술적, 전략적 선택을 제시된 교리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성신이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확인해 주기를 구하며, 성신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기를 탄원할 것이다. 부정하고 불경한 모든 것과 싸우는 전투에서 그토록 탁월하게 신성함을 방어하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극명히 대조되는 듯 보이는 헨리 비 아이어링의 삶에서 순수성의 극치를 보여 준다. 그런 그의 비행 승무원이 된다면, 그의 전함을 탄다면, 또는 그의 참호 안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

이 기사를 준비하는 데에서 로버트 아이 이튼과 헨리 제이 아이어링이 쓴 아이어링 회장의 전기 *I Will Lead You Along: The Life of Henry B. Eyring*의 도움이 컸다. 아이어링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와 전기의 배경은 이 자료를 토대로 했다.

주

1. 개인 서한, 2018년 4월 25일.

2. 헨리 비 아이어링, “내 손주들에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1~72쪽.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참된 교회

지 금쯤이면 여러분도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1권의 처음 몇 장을 읽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경험한 역사를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온 교회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선보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감흥은 대체로 우리가 그 역사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역사라면 흠결없는 지도자들이 계시받은 일련의 지침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널리 환영받고 수용되는 완벽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경전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경전, 교리, 후기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중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목적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거나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 믿는 …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12~13) 주님의 주된 목적은 그분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졌는지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써 어떻게 완전을 향해 성장하는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발견한 것들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동일한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축복받을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모로나이서 10:32)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그 노력이 때로 불완전했는데도, 그리고 때로 실수를 범했는데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된 신권 권세, 구원 의식, 계시받은 교리, 경전, 십이사도와 제일회장단이라는 단합된 정원회의 정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성신이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증언해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지키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해의 영광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풀어 쓴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 권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사실에 충실합니다. 이 역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자랄 것이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강화될 것이며, 우리도

그분들이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코니쉬 장로는 이 기사를 쓴 당시 교회 역사부 집행 책임자 보조로 봉사하고 있었다.

성도들 제7장이 다음 기사에 실려 있다. 1권 전체의 인쇄본은 store.lds.org에서 14개 언어로 구입할 수 있으며,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유명 전자책 및 오디오 북 사이트와 앱에서도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구할 수 있다.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영감 어린 사건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2018년 9월 9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하는 전 세계 영적 모임인 실시간 대화 모임에 참여한다. YSAface2face.lds.org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사전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장

동역자 된 종들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7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1장~6장까지는 3월~8월호 리아호나에 게재되었으며,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18 29년의 봄은 5월이 다 되어도 춥고 습한 날씨를 보였다. 하모니 인근의 농부들은 날씨가 포근해질 때까지 파종을 미룬 채 집 안에만 머물며 생활했고, 그 기간에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¹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당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고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그때 그곳에서는 큰 지진과 폭풍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지형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다. 땅 밑으로 가라앉는 성읍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 버린 성읍도 있었다. 몇 시간이나 하늘이 갈라질 듯 번개가 쳤고, 태양이 자취를 감춰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사흘간 울부짖었다.²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³ 구주께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백성들은 잘못을 회개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풍요라 불리는 지역의 성전으로 모여들어 눈앞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⁴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⁵ 그분은 한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⁶ 구주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의로운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어,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⁷

조셉과 올리버는 이 가르침을 번역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엘빈과 마찬가지로, 조셉은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침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권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⁸

1829년 5월 15일, 조셉과 올리버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사스케하나 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침례와 죄 사함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구속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뒤이어 빛 구름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 소개하고, 두 손을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 위에 얹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벅찬 기쁨을 느꼈다.

요한이 말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느니라].”⁹

요한의 음성은 온화하면서도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¹⁰ 그는 조셉과 올리버가 이제 아론 신권의 권세로써 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떠난 뒤에 서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했다. 또한, 그들은 나중에 다른 신권을 하나 더 받게 될 것이며, 그 신권이 있으면 서로에게, 또 침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례 요한이 떠나자, 조셉과 올리버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었다. 올리버는 물에서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다. 물에서 나온 조셉은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에 대해 예언했다.¹¹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 요한이 지시한 대로 숲으로 돌아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다. 그들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고대 기록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과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해 왔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직접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침례를 받은 조셉과 올리버는 복잡하고 난해하기만 했던 성구들이 갑자기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진리와 이해로 그들의 생각이 밝아졌다.¹²

한편, 뉴욕에 사는 올리버의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는 조셉이 하는 일을 더 알고 싶어 했다. 데이비드는 맨체스터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페이에트에 살았지만, 올리버가 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교사 일을 할 때부터 그와 친구로 지내 왔다. 둘은 자주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올리버는 하모니로 떠나오면서 번역에 관한 일을 편지로 알려 주겠다고 데이비드에게 약속했었다.

곧 올리버의 편지가 데이비드의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조셉은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조셉이 계시를 받고 판을 번역하는 이야기도 상세히 들려주었다. 한번은 번역된 내용 몇 줄과 함께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편지에 적어 보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올리버는 데이비드에게 보내는 또 한 번의 편지에서, 하모니로 마차를 끌고

와서 자신과 조셉, 에머를 페이에트에 있는 데이비드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며,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번역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¹³ 하모니 사람들은 전만큼 조셉과 에머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아직 에머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분명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을 것이었다.¹⁴

데이비드는 올리버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여 주었다. 휘트머 가족은 조셉과 에머, 올리버를 집에 들이기로 결정했다. 휘트머 일가는 독일어를 쓰는 그 지역 정착민의 후손이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해 왔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직접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근면하고 독실하기로 유명했다. 휘트머 가족의 농장은 맨체스터에 있는 조셉의 본가와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보물 수색꾼들이 쫓아오지는 못할 만한 거리에 있었다.¹⁵

데이비드는 당장 하모니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그가 이들은 꼬박 걸리는 일을 해야만 하모니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는 파종철이었다.

데이비드는 2만 4천여 평의 땅을 쟁기로 간 뒤, 밀이 잘 자라도록 석회를 뿌려야 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꼭 당장

가야만 하는지를 기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말대로 기도했고, 하모니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 할 일을 끝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간 데이비드는 밭에 깊은 고랑이 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밭은 쟁기가 닿은 적도 없는 땅이었다. 밭을 자세히 둘러보니 약 7천여 평가량의 면적이 밤새 다 갈려 있었고, 이제 나머지 일은 데이비드에게 하라는 듯 쟁기가 마지막 고랑에 세워져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일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구나. 석회를 다 뿌리는 대로 어서 펜실베이니아로 가거라.”

데이비드는 힘을 내 남은 밭을 마저 다 갈고, 파종 준비를 마쳤다. 일을 마친 데이비드는 힘 좋은 말을 마차에 묶고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하모니로 출발했다.¹⁶

조셉 부부와 올리버가 집에 온 후로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데이비드의 부모인 메리와 피터는 근방에 사는 분가한 자식들까지 포함해 모두 팔

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의 나이는 대략 열다섯 살부터 서른 살 사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 뒤치다꺼리에 하루가 빠듯했던 메리는 세 명의 객식구가 들어온 후로는 생활이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졌다. 메리도 조셉의 부름을 믿었기에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¹⁷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메리가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면, 조셉은 위층 방에서 번역 일을 했다. 보통은 올리버가 서기 일을 했지만, 에머나 휘트머 식구 한 명이 펜을

들고 순서를 넘겨받을 때도 있었다.¹⁸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일로 머리가 무겁고
피로할 때면 가까운 연못으로 나가
물수제비를 떴다.

반면, 메리는 허리를 펴 새도 없이
일을 했다. 집안일이 늘고 부담이 커져
그녀는 힘에 부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메리가 외양간 옆에 나와
있을 때 백발을 하고 어깨에 큰 주머니를
멘 한 남자가 메리 앞에 나타났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메리는 터럭 겁이 났지만,
그가 다가오며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곧 마음이 놓였다.

“내 이름은 모로나이라.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외의 일까지 하느라 몹시도
지쳐 있도다.” 모로나이는 메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주머니를 내려 열었다.¹⁹

모로나이가 말했다. “그대는 정말로
충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증거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²⁰

모로나이가 큰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금판이었다. 그는 금판을 들고서 메리가
거기 적힌 것들을 볼 수 있게 한 장 한
장을 넘겨 주었다. 그는 금판을 마지막
장까지 다 보여 준 뒤, 인내와 신앙으로
이 여분의 짐을 조금만 더 견뎌 달라며
메리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²¹

잠시 후 모로나이가 사라지고, 메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 그것은 메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²²

휘트머 가족의 농장에 머무는 동안 번역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조셉은 종종 고비를 맞았다. 그는 번역이 아닌
다른 일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그럴 때면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²³ 휘트머 가족의 아담한 집은 항상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이곳에 온 이후로는 하모니에서만
사생활을 보호받기도 어려웠다.

어느 아침에는 번역을 준비하던 중에 조셉이 에머에게
화를 낸 일이 있었다. 그는 올리버와 데이비드와 같이 일하는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단 한 단어도 번역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조셉은 밖으로 나와서 과수원으로 갔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마틴이 외쳤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어요!”³²

오후 늦게 조셉은 세 명의 증인과 함께 휘트머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은 메리 휘트머가 조셉의 부모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조셉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에게 판을 더 보여 주셨어요. 이제 그분들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는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금부터는 그분들도 짐을 나눠서 져야만 해요. 이제 저는 혼자 아니예요.”

뒤이어 기쁨에 흠뻑 젖은 마틴이 들어왔다. “나도 하늘에서 온 천사를 보았어요! 내 영혼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분은 몸을 낮추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 위대한 사업을 증거해 주셨어요!”³³

며칠 뒤, 휘트머 가족이 맨체스터의 농장에 있는 조셉의 본가를 찾아왔다. 주님은 일찍이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말씀을 확증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 조셉은 아버지인 조셉 일세와 하이럼, 새뮤얼, 데이비드 휘트머의 형제들인 크리스찬, 제이콥, 피터 이세, 존, 그리고 그들의 처남인 하이럼 페이지와 함께 숲으로 갔다.³⁴

스미스 가족이 종종 은밀히 기도드리던 장소에 조셉과 여덟 사람이 함께 모였다. 조셉은 주님의 허락을 받아 판을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세 명의 증인과 달리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판을 들고 낱장을 넘기며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로써 그들은 천사와 고대 기록에 대한 조셉의 간증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³⁵

이제 번역은 완성되었고, 조셉은 기적과 같은 자신의 간증을 뒷받침해 줄 증인들을 얻었다. 조셉은 이제 더는 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덟 명의 증인이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천사가 나타났고, 조셉은 성스러운 기록을 다시 천사에게 돌려주었다.³⁶ ■

인용된 문헌은 모두 saints.lds.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온라인 saints.lds.org/kor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58, note 49.
2. 제3니파이 8장;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16; 또한 Kowallis, “In the Thirty and Fourth Year,” 136–90 참조.
3. 제3니파이 9:13.
4. 제3니파이 10:9; 11:1
5. 제3니파이 11:10; 15:21~24; 또한 요한복음 10:16.
6. 제3니파이 11:33.

7. 제3니파이 11:23~33.

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3–16.

9. 교리와 성약 13: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23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42–59. **주제:** Restoration of the Aaronic Priesthood(아론 신권의 회복)

10.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Articles of the Church of Christ,” June 1829, in *JSP*, D1:371.

1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4–96 (draft 2).

13.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 JSP, H1:296 (draft 2).
15.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Dickinson, *New Light on Mormonism*, 250; "The Book of Mormon," *Chicago Tribune*, Dec. 17, 1885,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8];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 - 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26-27.
 17.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 - 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8. 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19. 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0.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 - 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21. 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2.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 - 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tevenson, *Journal*, Dec. 23, 1877.
 23. Whitmer,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30.
 24.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see also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7.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1:352-54 (draft 2). 주제: Book of Mormon Translation[물문경 번역]: Gold Plates[금판]
 26. 니파이후서 3:7-19.
 2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니파이후서 26:16; 27:15-21.
 28. 교리와 성약 17편 (Revelation, June 1829-E,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5:11-18 (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1:314-17 (draft 2).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3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18 (draft 2).
 31.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20 (draft 2);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89]. 주제: Witnesses of the Book of Mormon[물문경의 증인들]
 3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5, in JSP, H1:320 (draft 2).
 3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book 9, [1].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 니파이후서 27:14.
 35.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90]. 주제: Witnesses of the Book of Mormon[물문경의 증인들]
 3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내 연차 대회 노트

2018년 4월 연차 대회



신권 vs 신권 소유자

“멜기세덱 신권은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 이롭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신성한 권능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신권’ 그 자체는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권과 여성’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와 여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의 권능”,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5쪽.

더 깊이 알아보기

성역

연차 대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성역에 대해 말씀했다. 가장 최근 메시지들을 공부하면서 성역의 특성들을 찾아본다. 먼저, 다음 말씀부터 살펴본다.

- 헨리 비 아이어링, “그분의 영광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86~89쪽.
- 헨리 비 아이어링, “영감받은 성역”, 2018년 5월호, *리아호나*, 61~64쪽.
- 제프리 알 홀런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1~103쪽.
-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4~107쪽.

선지자는 여러분과 구주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곁에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선지자”,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27쪽.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정말 제 죄를 잊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절망 어린 사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는 지워질 뿐 아니라 잊혀질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후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라 이 사람이로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8, 109쪽.

여러분이 품었던 질문 중에 대회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liahona에 나눠 주세요.

그들은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나? 그림의 일부, 제이 커브 리처즈, 공채과 지구 이미지: GETTY IMAGES



선지자의 가르침을 시험해 보다

나는 넬슨 회장님의 대회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말해 주고 싶어 하신다. 오늘 나는 그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점심 식사 후에 차에 기름을 넣어야 했다.

누군가의 기름값을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설마 정말 그럴까 하며 “한번 보자”라고 생각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시작했다. 내 옆에 미니밴이 서더니 아들과 함께 한 여자분이 내렸다. 그분은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기름을 거의 다

넣었을 때쯤 그 여자분이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분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분에게 오늘 누군가에게 기름을 사줘야 했었다고 말했다. “그 누군가가 그쪽이신가 보네요.” 놀란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어떤 분이 그쪽을 돌봐 주고 계시네요.”라고 말했다. 주유 펌프를 돌아가서 내 신용카드를 넣었다. 내 차로 돌아와서 저 위에 계신 어떤 분이 나 또한 돌봐 주고 계시다고 확신하며 그곳을 떠났다.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조나단 벤슨, *리아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 또는 *리아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나눠 주세요.

다음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날이 하루만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 칠십인, “하루만 더”,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34~36쪽.

여러분의 생각을 *리아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나누거나 일지에 기록해
보세요!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통계

현재 봉사 중인
선교사 수:

103,221

전임 선교사: 67,049

교회 봉사 선교사: 36,172



다음
일곱 곳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아르헨티나 살타, 인도 벵갈루루,
니카라과 마나과, 필리핀
카가얀데오로, 유타 레이턴,
버지니아 리치먼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의 대도시.



신앙과 가족 이야기의 힘

조상이 겪었던 역경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로잘린 파치니는 항상 고조모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고조모인
엘리자베스 사비에르 테이트의 신앙심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왔기 때문이다. 봄베이에서 리버풀을
거쳐 시온까지 가는 내내 주님을 신뢰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시련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에 어린 로잘린은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로잘린이 살아가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조모와 같은 신앙을 키우고
그것에 의지하도록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집과 가족을 떠나 엘리자베스, 1850년대, 인도 봄베이

엘리자베스 사비에르는 인도의 부유한 귀족 가문의 자녀로 안락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온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1850년에 윌리엄 테이트와 결혼하면서 시련을 맞게 된다. 윌리엄은 영국 해군 소속 연대 교관으로, 스코틀랜드에서 팔리 피 프렛에게 침례를 받은 청년이었다.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그녀가 침례받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가족과 관계가 어그러져 압박감을 느끼는 와중에 그녀는 첫 아들을 콜레라로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온에서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 남편 윌리엄과 둘째 아들을 먼저 시온으로 보냈다.

아기가 태어나자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제발 남편과 종교를 버리고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던 그녀는 결국 가족과 고향에 영원한 작별을 고하고 영국 리버풀행 배에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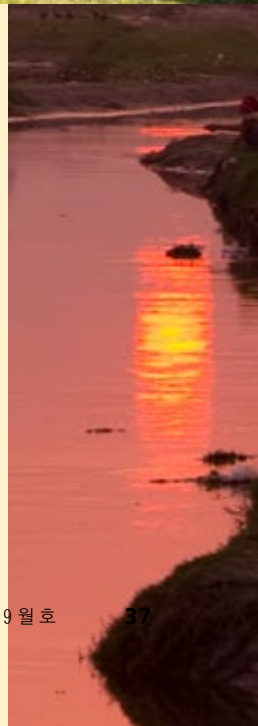
로잘린, 2003년, 미국 콜로라도주

로잘린은 미국 유타주 남부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대가족의 막내로 자라났다. 그녀는 가정에서,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을 목격할 기회가 많았다. 성전에서 결혼한 후 로잘린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고향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이주하며 자신의 간증을 시험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콜로라도주로 이주한 로잘린은 어머니가 몇 년 간이나 암과 싸우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

“평생 고향의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로잘린은 말한다. “제가 어른이 되어 멀리 떠나야만 했던 것이 가슴 아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 삶도 함께 무너졌죠. 지금도 매일매일 엄마가 보고 싶어요.

분명 엘리자베스 할머니에게도 고향이 몹시 그리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권능이 삶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얻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저 역시 바로 그 권능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지상의 가족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 엘리자베스, 1856년, 영국 리버풀

인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긴 여행 중에 엘리자베스의 젖먹이 딸아이는 중병에 걸렸다. 아기는 결국 숨을 거뒀고 리버풀 땅에 묻혔다. 훗날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잃은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연했다고 회상했다. 비통하고 외로웠지만, 유럽 선교부 회장인 십이사도 정원회 프랭클린 디 리처즈 장로의 격려에 힘입어 엘리자베스는 보스턴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다.

로잘린, 2006년, 미국 뉴욕주

파치니 가족이 늘어나는 가족을 이끌고 뉴욕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로잘린에게 조산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태아의 심박 수가 계속 떨어지자 의사들은 분만 수술을 고려했다. 그러다 태아의 심박 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은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아기의 심장 박동이 잡히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로잘린은 사산을 했다.

“아기를 잃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로잘린은 이렇게 회고한다. “사람들이 그 작은 아기를 제 품에서 데리고 갔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가족은 유타주로 날아가서 아기를 로잘린의 어머니 곁에 묻었다. 몇 주가 흘렀지만, 로잘린은 그곳을 떠나 다시 삶을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할머니도 그런 심정이셨겠지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로잘린은 말한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계속 삶을 이어가셨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멈추어 설 수는 없어요. 전보다 구주께 더욱 많이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항상 우리 주위에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혹독한 겨울 엘리자베스, 1856년, 미국 아이오와주

대서양을 건넌 후, 엘리자베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당시 서부행 기차의 종착역이었던 미국 아이오와주까지 갔다. 엘리자베스는 1856년 7월에 도착한 후 윌리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다.

윌리 손수레 부대와 마틴 손수레 부대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숭한 고난을 겪었다. 출발 시기를 놓친 두 부대는 로키산맥에서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에 포위되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브리검 영 회장이 보낸 구조 대원 중에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윌리엄이 있었다. 두 부부는 깊이 쌓인 눈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렇게 재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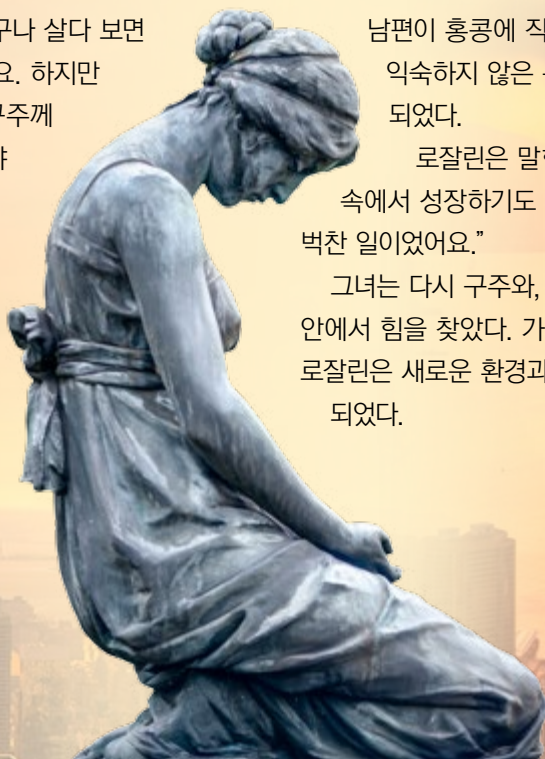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 이들 부부는 시더시티에 터전을 잡으며 그들의 여정을 끝마쳤다. 그곳은 로잘린이 태어난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로잘린, 2007년, 중국 홍콩

여러 세대 전에 엘리자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로잘린은 남편이 홍콩에 직장을 잡게 되면서 바다를 건너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정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로잘린은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와 모험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도 벅찬 일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구주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 안에서 힘을 찾았다. 가족과 사랑하는 와드 자매들의 도움으로 로잘린은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이들도 걸었던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시련을, 즉 자신이 건너야 할 초원과 대양, 맞서야 하는 혹독한 겨울을 겪으며 여행을 해 나간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이런 길을 지나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구주를 신뢰했던 이야기에서 희망과 힘을 찾는다.

로잘린은 이제 인생 여정의 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엘리자베스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있기에 자신의 여정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엘리자베스 할머니를 닮았을지 모르죠. 아닐 수도 있고요. 제 아이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할머니와 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 다 끝까지 충실했고, 시련을 통해 더욱 구주를 닮아 갔다고 말이죠.”

이 길을 앞서 지나간 이들에게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아는 로잘린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로잘린은 말한다. “조상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유와 동기까지도요.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복음에 헌신하는 전통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차례인 거죠.” ■

**조상들의 이야기는 로잘린
파치니와 그녀 가족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전에 나오는 가족 이야기

연 구에 따르면, 자신의 조상이 겪었던 역경에 대해 잘 아는 후손은 삶에 닥치는 어려움을 더욱 잘 극복하게 된다고 한다.¹

몰몬경에서 힐라맨도 자녀들이 기록과 이야기를 통해 전해 내려온 가족 이야기와 연결될 때 얻게 될 힘을 알고 있었다. 힐라맨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볼지어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나온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하노라.”(힐라맨서 5:6~7)

주

1. See Robyn Fivush, “Collective Stories in Families Teach Us About Ourselves,” *Psychology Today*, Feb. 2, 2017, psychologytoday.com/blog/the-stories-our-lives/201702.



자신을 위해 계획했던 삶을 내려놓고

여섯 살인가 일곱 살쯤 되었을 때부터 나는 해양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목표에 집중했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다. 동물학 강좌를 몇 개 수강했는데 그 수업들도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체에 대해서, 특히 세포 분야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나는 병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나는 언제나 가족을 꾸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먼저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다. 가족이 주님의 구원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영양학 박사 과정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원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예기치 않게 일곱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40대였고, 배 속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쉰 살 가까이 될 것이었다.

‘오랜 시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긴 하지.’ 나는 생각했다.

갑자기 평생 바라 왔던 직업에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대한 꿈이 무너져내리는 듯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경전 구절 하나가 내 마음과 생각에 떠올랐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지금껏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이 구절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계획했던 삶을 내려놓고 자녀를 키우는 데 모든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의사로서도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겠지만, 나는 내 자녀의 삶에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

자넷 콕스, 미국 텍사스주



시차로 생기는 피로감과 지혜의 말씀

나는 직업상 일 년에 몇 번씩 대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 긴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열다섯 시간의 시차이다. 시차로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세계 각지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이 교육에 참석하러 온다. 그들은 깨어 있으려고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기 위해 적포도주를 마시며 시차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겨 내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동료들이 커피와 포도주를 권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며 주님께 포도주나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놀리는 투로 그런 계명을 일일이 지키면 인생이 더 힘들 뿐이라고 말했다. 때때로, 나는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니파이전서 8:26~27 참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지겨운 짐처럼 느껴졌다. 어느 잠 못 이루던 밤, 나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날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 주었다. 아내의 격려를 받고 나는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고 사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번은 동료가 커피 두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왜 두 잔을 마시는지 물어 보았다.

“이제 깨어 있으려면 한 잔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는 말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랐다. 그들은 잠이 들려면 포도주를 더 많이 마셔야 했다. 가끔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늦잠을 자기도 했다.

동료들이 술과 커피에 더욱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만일 내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시차에서 오는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폭 자고 일어나 해가 뜨는 것도 보았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다면 크든 작든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 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계속 순종하고, 내 신앙을 강하게 지키며, 끝까지 견디면 된다. ■

앤드류 리, 타이완 신베이시

동료가 커피 두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겨운 것처럼 느껴졌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가고 난 뒤

우 리 가족은 2016년 8월에 카리브해 지역의 도미니카 연방으로 이주했다. 우리는 곧바로 이 섬의 아름다움과 문화와 사람들에게 푹 빠져들었다. 우리는 이곳의 한 지부에 참석했으며 회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5등급 허리케인 마리아가 이 섬을 덮쳤다. 남편과 나는 강력한 태풍으로 집과 차들이 거리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맹렬한 허리케인이 섬을 관통했는데, 그 파괴력은 가공할 만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울창하고 생명력 넘치던 도미니카의 열대 우림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그날 아침에 우리는 도보로 몇몇 지부 회원들의 집을 찾아갔다. 큰 피해 없이 주거가 가능한 상태인 집은 단 두

채였다. 섬 북쪽에 살던 여덟 가족 중 여섯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도미니카 전체 가옥과 건물 중 80퍼센트가 주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비극에도 많은 가족들은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죠.”

우리 가족은 자립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많은 이웃과 선교사, 지부 회원들을 먹일 수 있었다. 우리는 평균 20명의 끼니를 책임졌다. 비축해 둔 식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집은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앨마와 그의 백성들의 “집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집을 지게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모사이야서 24:15)

비록 지금도 여전히 수돗물과 전기, 일상적인 편의 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힘과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 줄 힘을 얻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간 이후로 몇 달 동안 나는 현세적으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 위에 간증을 쌓아 올린다면, 살아가는 동안 바람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을 굳건한 토대를 다지게 될 것이다. ■

브리엔 앤더슨, 미국 버지니아주

20 17년 9월에 5등급 허리케인이 도미니카를 덮쳤다. 남편과 나는 강력한 태풍으로 집과 차들이 거리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가 당신의 자녀인가요?”

교회에 몇 번만 가 봤을 뿐이었지만, 내 가정 복음 교사는 충실하게 나를 방문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전화로 다음 복음 원리반 수업에서 영원한 가족에 관한 생각을 나눠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나는 그 일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내가 영원한 가족에 관해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복음을 멀리하는 선택을 해 왔다. 확실히 믿지도 못하는 사실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다. 그때,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랐다. 여러 해 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였지만, 가사는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그분의 자녀인지 여쭙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당시 나는 침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한가운데 비스듬하게 놓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이 존재하시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소망으로부터 이 단순한 말이 흘러나왔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기 계신가요? 정말로 계시다면, 저는 당신의 자녀인가요?”

응답은 즉시 왔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묻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렇단다, 카밀.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나의 자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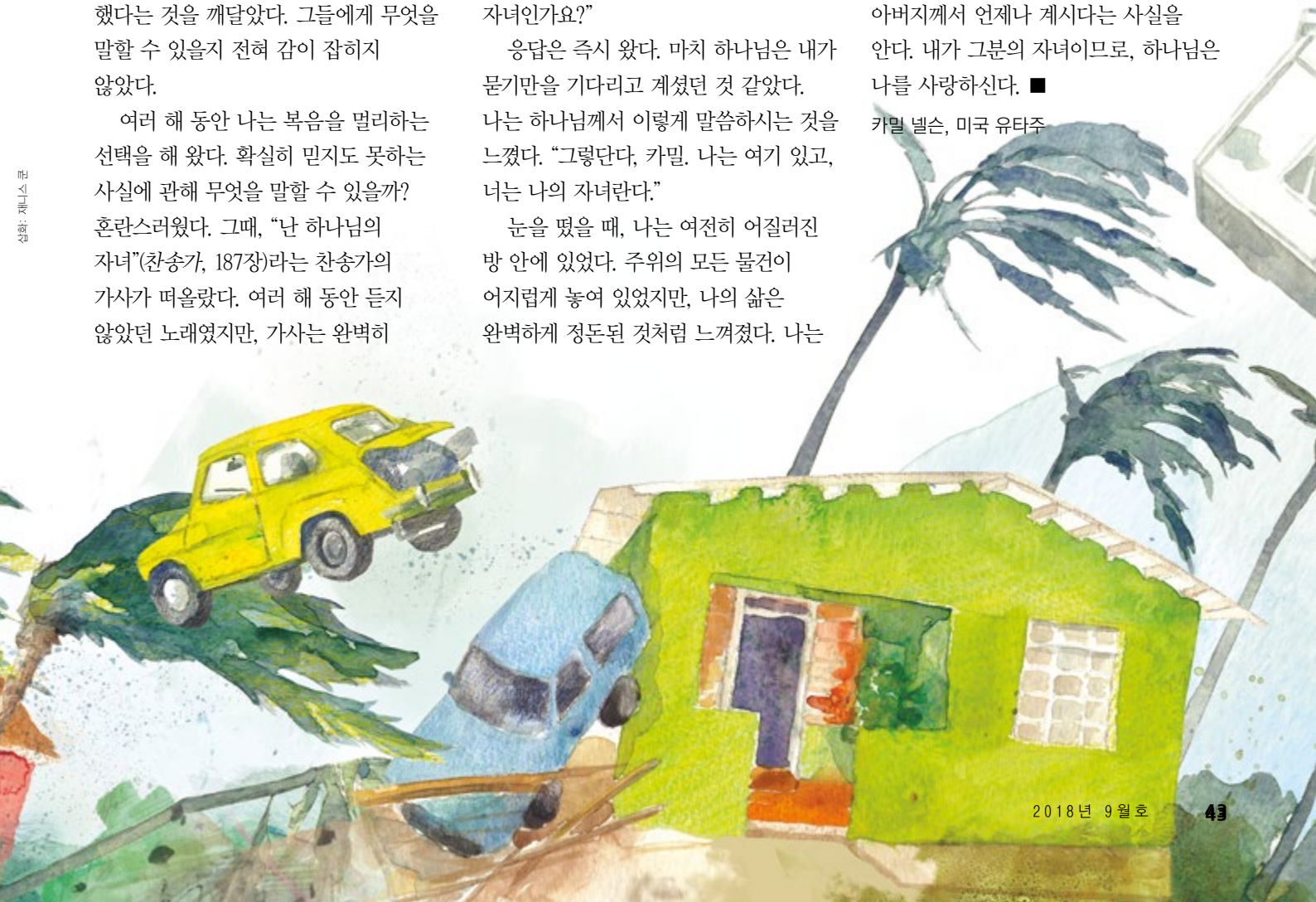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어질러진 방 안에 있었다. 주위의 모든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나의 삶은 완벽하게 정돈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일요일 공과 시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로부터 다시 3년 반의 시간이 걸려서야, 나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가 누구인지 결코 의심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

카밀 벨슨, 미국 유타주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칠십인

구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 초반에,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하고 헌신적인 젊은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세미나리에 참석했고, 같이 운동을 했고, 같이 대학교를 다녔고, 같이 선교 사업을 준비했으며, 몇 개월 차이로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선교 사업 후, 그는 같은 스테이크의 재능 있는 훌륭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그와 그의 아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시절에 알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뜻깊었던 우정을 추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어리석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벌어진 시간의 간격을 좁혀 보려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음에 담아 두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깊이 개심했었고 헌신적이었잖아! 왜 교회를 떠난 거지? 대체 뭐 때문에 성전 성약을 저버린 거야? 구주를 떠난 거니?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진실하고 충실하자고 서로 약속했었잖아!”

“케빈.”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다르게 보여.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야. 교회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단지

필요하지 않을 뿐이야.”

그와 헤어지기 전에 저는 제가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우정에 대한 감사와 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제 간증을 전했습니다. “팀, 나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걸 알아. 너도 이것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어. 너는 항상 알고 있었어. 한때 있었던 명확함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하지만 전에 가졌던 성신의 빛과 이해력을 다시 얻을 수 있어. 부디 돌아오길 바라.”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너의 확신과 열정을 존경해.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들과 그 선택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삶에까지 미친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팀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굳건하고 확고하게 개심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삶의 시련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평안과 이해를 얻기 위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삶에 항량한 어둠이 드리울 때 본능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떠올리시겠습니까?¹

교회와 교회 역사,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세상의 신념과 행위가 회복된 복음의 원리와 상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주의를 빼앗고, 속이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관점을 왜곡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 난제는 이러한 무기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해서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교회 교리, 교회 지도자들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격렬한 유혹과 고난이 5등급 영적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에 매달리겠습니까? 구주께서 십이사도에게 하신 날카로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7~69)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히버 시 김볼(1801~1868) 회장님의 강력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밸리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꽤 만족해했습니다. 많은 것을 극복하고 견뎌 낸 그들은 약간 교만해졌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온갖 문제와 시련, 핍박을 겪는 때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일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 내려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 만일 그 간증이 없다면, 올바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간증이 없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 그 어떤 남자나 여자도 빌린 빛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이 없다면,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²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³ 여러분과 제가 이 사업과 함께 전진할 것인가만이 미지수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여섯 가지 필수적인 일을 제안합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최우선에 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선행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니파이후서 31: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 개인 기도를 한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서[조셉이 ‘블로그’라는 말을 덧붙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성한 가르침을 얻는 것입니다.”⁴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더 많은 응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질문을 하십시오. 성신의 영향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십시오.(모로나이서 10:5 참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빛이며, 이 빛은 이해력을 가져다줍니다.

3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109:7) 배움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자는 배움을 추구하지만, 사물은 행함을 받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학습자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들, 즉 더 큰 빛과 지식, 더 깊은 이해력과 개종을 구하는 여성과 남성을 필요로 합니다.(교리와 성약 93:96 참조) 이는 결심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위키나 블로그를 검색하는 것으로는 깊이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신앙을 잃은 사람들의 의심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불붙습니다.

4 경전, 특히 몰몬경을 매일 공부한다. 몰몬경은 특별히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니파이는 몰몬경의 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5:24) 만약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몰몬경에 첫 장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몰몬경에 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구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빛과 진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따르고 진리를 붙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신의 권능을 받아 진리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7년 3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The Lens of Truth”에서 발췌함.

주

1.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참조.
2. [In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45), 449–450.]
3.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40.
4.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425.

5 큰 그림에 집중한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 집중하십시오. 그 계획은 진리를 보여 주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과 문제와 염려에 맥락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야곱서 4:13)



6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분은 여전히 “제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제3니파이 11:11; 또한 요한복음 8:12 참조) 여러분이 의심과 어려움과 유혹에 둘러싸여 압도당할 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배신할 때, 계속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니파이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를 아노라. ...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니파이후서 4:19, 34)



나의 신성을 발견함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년간의 몸부림
끝에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나의 영원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다이아네 코스 다 실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체중 조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내 몸무게 때문에 생긴 별명들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 나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말임을 의미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10대 시절에 나는 내 신체적 특성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형이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조용한 성격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들은 내가 수업 때 발표를 하길 원했고, 남자아이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을 좋아했으며, 나는 더 외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조금씩 나의 자존감은 시들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나는 내 몸을 불편하게 여기며 우울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왜 주님은 나를 조금 더 예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다이어트를 하려 했고, 알뜰게도 살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체중이 늘어났다. 내성적인 데다가 과체중인 독신이 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며 살을 빼지 못하거나 더 외향적인 성격이 못되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은 멈췄지만, 자신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딸로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린 것이었다.

나에게 필요한 빛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2016년 9월에 있었던 독신 성인들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의 부인인 메리 지 쿡 자매님이 전하신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읽던 중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침내, 나의 마음이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빛을 향해 열리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정해 놓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성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의 내성적이고 괴짜 같은 성격과 흐트러진 곱슬머리, 갈색 눈, 감자 같은 코, 큰 웃음,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나의 과제중인 몸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 감사했다. 마침내, 그분의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수년간 고생한 끝에 드디어 한 가지 진리를 배운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분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가치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가치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항상 내 안에 있었다. 그것은 대중 매체나 또래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구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쌓는 기초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에 관해 영으로부터 배운 후로 나는 여러 면에서 변화되었다. 나는 다시 삶과 사랑에 빠졌다. 나는 내가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들에 더욱 감사한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 자신과 내 꿈을 더욱 믿고 싶다는 커다란 소망을 느낀다. 주위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인내하며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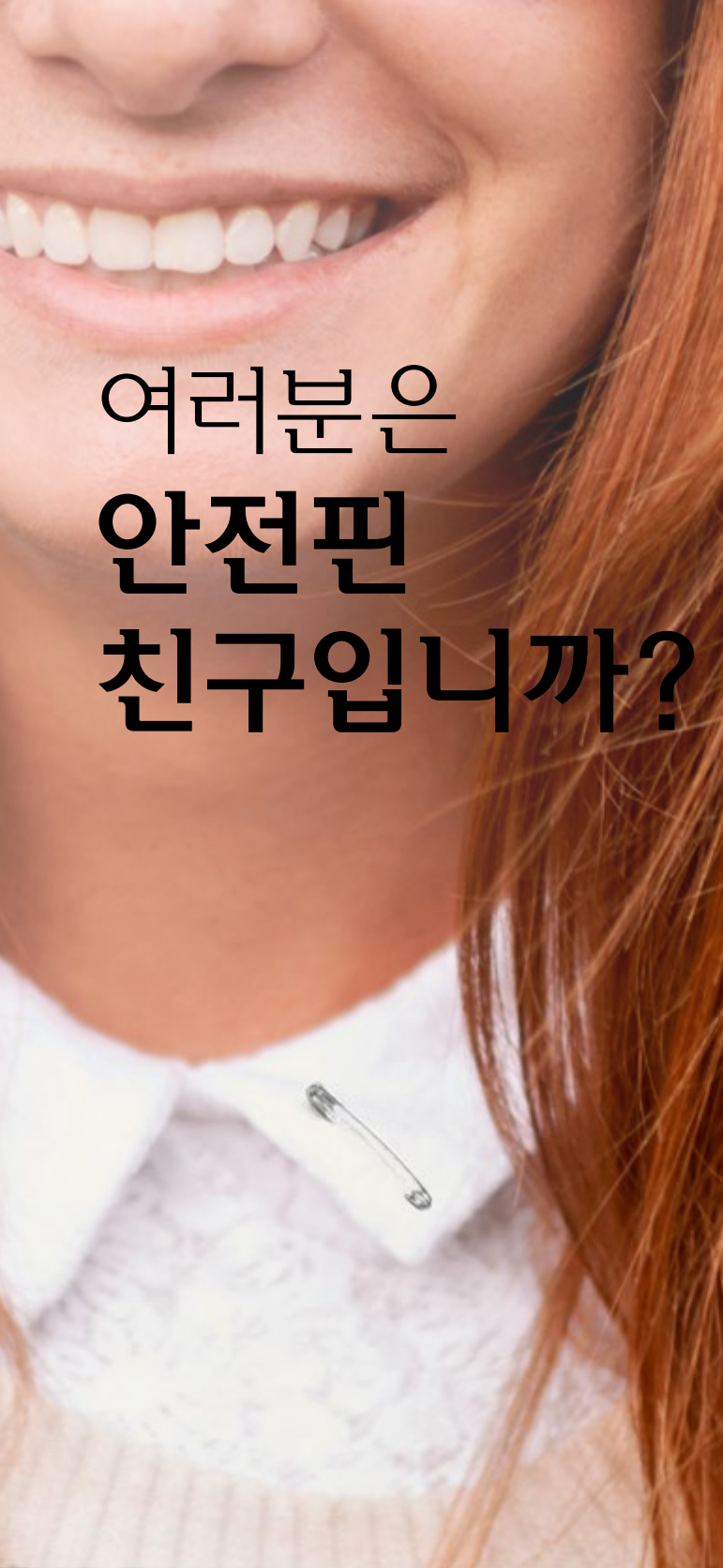
세상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리치고 판단하지만, 나는 이제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내 가치에 대해 확고한 지식을 얻었다. 이 지식 덕분에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 그 영적 모임의 말씀을 통해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나]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나]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만서 5:12)

나는 주님과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서 보시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 감사한다. 쿡 자매님처럼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고 그 지혜를 나눠 주시는 영감받은 여성들에게 감사한다. 이 삶과,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기적,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내재된 신성에 감사한다. ■
글쓴이는 미국 뉴욕주에 산다.





여러분은 안전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친구에게 자신이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아벨이 보이지 않자, 주님께서는 그의 형제인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다. 가인이 대답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애를 돌보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것에 대해 아주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하셨다. 거기에는 서로 돕고, 보살피고, 걱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누가복음 6:31 참조)

여러분 주위에는 무언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고통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안전핀 친구들

서로를 돕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찾아낸 친구들이 있다.
다들 가정환경과 배경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정을 튼튼히 하고 싶어 했다.

한 친구가 가정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냥 사라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판단할까 걱정이 되어 웃음 뒤로 감정을 숨긴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녀가 자신들과 있을 때는 안전하다는 것을,
또 그녀가 있어서 세상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옷에 안전핀을 다는 것이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우정을 만들겠다는 결심과 항상 서로의
곁에 있자는 소망을 상징하는 안전핀을 매일 옷에 달아 서로
상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 청녀는 아직도 안전핀 친구들을
기억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아끼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느꼈던 안도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친구를 돕기 위해 여러분도 안전핀을 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친구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안전한 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는 것에 능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는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랜드 장로는 말한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유다서

“다른 누구보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는 것에 능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는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1:22)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¹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래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한다. 단순히 보이는 일이지만,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벽히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동정심 많은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는지 지켜본다.
- 봉사할 수 있는 작고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의 말처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² 친구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특별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 사랑이 많고 힘을 주는 친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여러분은 그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 안전핀 달기와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어떤 청소년들은 웃기게 생긴 양말을 만들고 “용기와 친절과 봉사를 구하는 이들”이 되기로 약속했다.(이 말은 영어로 “seekers of courage, kindness, and service”인데 약자로는 양말을 뜻하는 socks가 된다.) 다른 그룹은 자신의 감정을 색깔을 통해 서로에게 전하기로 했다. 만약 어느 날 한 사람이 “보라색”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친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특히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다가갈 때, 여러분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때때로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강하며, 힘이 있다.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라. 그분은 시련을 겪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

저자는 교회의 자살 방지 위원회의 위원이다.

주

1. 2018년 1월 23일에 있었던 렌랜드 장로와의 인터뷰
2. 린다 케이 버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78쪽.

더 읽기

이번 호의 “희망의 사절” 기사에서 유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학교에 더 많은 희망을 가져왔는지 알아본다.

희망의 사절: 자살을 막기 위해 협력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희망을 나눔으로써 친구를
강화할 수 있다.



머리사 드니스
교회 잡지

외 교계에서 사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권 없이도 사절이 될 수 있다! 이따금 너무도 암담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희망과 빛의 사절이 될 수 있다. 미국 유타주에서 학교의 희망 분대(HOPE Squad: 또래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잭슨 엘(왼쪽 사진에서 우측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Hope4Utah(호프 포 유타)라는 조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인식하고, 친구가 되고, 학교에 희망을 불러오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희망 분대에서 활동하면서 시야가 정말 넓어졌어요.” 잭슨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급우들, 친구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잭슨은 자신이 친구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배웠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십 대 10명 중 7명은 어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한다고 한다.¹ 이것은 여러분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의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 팔짱을 끼고, 이 길을 함께 걸을 성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휴대 전화를 내려놓고 누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지 잘 보십시오.”²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혹은 친구와 함께 공식 조직의 일원이 될 필요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알아보자.



내가 해야 할 일

희망의 사절이 되기 위해 **인식하고, 손을 내밀고, 보고하려고 노력한다.**

1.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상 징후를 **인식한다**.³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낌.
- 무모하게 행동함.
- 친구와 활동으로부터 멀어짐.
- 소중한 물건을 처분함.
- 주변 사람의 죽음, 생활의 큰 변화, 파도림 등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음.
- 수면, 식사, 혹은 위생 습관에 변화가 생김.
- 자살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계획을 세움. 다음과 같이 말함.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내가 없다면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거야.”

2. **손을 내민다.** 사절이 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하는 것이다. 친구와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한다. 자해나 자살에 관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할 용기를 낼 때, 그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구명 밧줄을 주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걱정한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된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살 예방 전문가이자 Hope4Utah(호프 포 유타)의 설립자인 그레그 허드널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직설적이되, 훈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나 삶의 목적을 찾는 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제 확신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신을 구할 때 자신의 삶에서 그 권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고 가까이 이야기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캐럴 에프 맥쿱키 자매, 전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그는 “나” 화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것은 혼계가 아닌 염려와 관심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보니 네가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 네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혹시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로 성신의 도움을 구한다. 만약 친구들이 자살 생각이나 우울증, 불안 증세와 같은 다른 심각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냥 떨쳐 버리라고 말해선 안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는, 건강하고 일시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추천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도와줄게.”

그다음에는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는 대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렌던 장로의 다음 말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과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북돋우는 것이 조언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⁴

3. **보고한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친구도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절들은 소리 높여 말한다! 친구와 함께 부모님, 학교 상담사, 또는 교회 지도자와 같은 신뢰하는 어른에게 가는 것을 제안한다. 친구에게 국가 자살 방지 센터 번호 혹은 긴급 문자 번호를 알려 준다. 만일 친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은 중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은 지킬 가치가 있다.* 부모님, 의사, 학교 상담사, 혹은 교회 지도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구하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면, 국가 자살 방지 센터 번호로 전화를 해 보라. (“자료” 항목 참조) 설사 어둠과 절망만이 느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빛과 희망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자료

- befrienders.org
- suicide.org/international-suicide-hotlines.html
- iasp.info
- suicide.lds.org

위험하면 병원으로 보내거나 긴급 전화 서비스에 연락하고, 친구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때까지 함께 있는다. 만약 친구가 당장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면, 친구와 함께하고 도움을 줄 지속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들이 무언가에 소속될 기회를 만드십시오.” 허드널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무언가 활동적인 일을 하도록 초대하십시오.” 움직이는 것은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은 유익하다.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친구를 돕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잠시 상상해 보라. 우리는 전 세계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는 있다.

맥콩키 자매는 우리에게 “기꺼이 친구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과 다르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권고한다. 그녀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살과 같이 파괴적인 행동 대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전환점이 되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격려한다. “여러분은 그만한 선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희망의 궁극적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다.

“우리의 희망 분대 고문은 우리가 ‘희망의 사절’이라고 말씀하시죠.” 잭슨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우리는 희망의 사절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이기도 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주님이시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이 희망과 치유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이 지상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실 거란 걸 알아요.”라고 잭슨은 말한다. “그분이 하셨을 일을 제가 하고 있음을 알기에 위안이 됩니다.” ■



“만약 우리가 다음 날, 그다음 날, 그리고 또 그다음 날까지 잘 견디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전하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할 때에 그(구주)가 아침마다 깨우시되’[나파이후서 7장 4절] 그분은 매일 그곳에 계십니다. ...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는 것뿐이더라도, 그분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 그것을 승리로 여기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만약 그것이 그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면, 계속 노력하십시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안전핀 친구”입니까?

앞에 나온 기사를 읽으며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지 살펴 보십시오!

주

1. See “What Are Hope Squads?” Hope4Utah, hope4utah.com/hope-squad.
2. Interview with Sister McConkie on Jan. 19, 2018.
3. See “The Warning Signs of Suicide,” Befrienders Worldwide, befrienders.org/warning-signs, and “Suicide: What to Do When Someone Is Suicidal,” Mayo Clinic, mayoclinic.org/diseases-conditions/suicide/in-depth/suicide/art-20044707.
4. Interview with Elder Renlund on Jan. 23, 2018.

자금성에서 길을 잃다

세라 키년

나는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한가운데에 있었다. 겨우 몇 분 전만 해도 주위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처한 위험을 즉각 이해했다. 번잡한 고궁박물관 한가운데에 15살짜리 미국인이 눈에 띄게 홀로 서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행으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중국에 왔고, 다른 선생님들과 가이드들은 외국 여행 중 조심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

나는 주변을 걸어 다녔고, 중국인과 외국인 여행객 무리를 밀고 지나가 발끝으로 서서 우리 일행이 입은 빨간색과 하얀색 단체 상의를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일행은 나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앉아서 입구와 출구를 쳐다보았다. 10분이 지나고, 30분, 45분이 흘렀다. 우리 일행 중



나는 영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명확한
계시를 받아 본 적은
없었고, 특히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더더욱 없었다.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았다. 눈을 들어 보니 살짝 제정신이 아닌 듯한 눈을 한 손톱이 긴 키 작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당겼다. “따라와.” 그녀는 서툰 발음의 영어로 말했다. “예쁜 소녀야, 따라와.”

가슴이 철렁했다. “비켜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빼냈다. 그녀가 다시 내 손을 잡기 전에 나는 출구로 달려나갔고, 자금성의 또 다른 구역에 들어갔다.

나는 한동안 계속해서 달렸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완전히 길 잃은 미아가 되어 갔다. 나는 인파와 조금 떨어져서 근처의 계단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몇 마디의 중국어를 알았다. 하지만 우리가 묵는 호텔을 물어 가며 찾아갈 정도는 못 되었다. 우리 숙소는 그 미로 같은 베이징 시내 반대편 어딘가에 있었다. 이쯤 되자 출구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잠시나마 일행과 떨어져 걸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다시 일행과 만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걸었다. 그때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설령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 계시가 어떤 소리나 느낌으로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전에 영을 느껴 본 적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뒤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으로 왔었다. 하지만 명확한 계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더더욱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하며 풀이 죽어서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림길에 다다랐다. “멈추라”는 속삭임이 느껴졌을 때,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세미해서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겨 완전히 무시할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당시 내가 느끼지 못했던 확신을 담고 있었다. “저 벤치에 앉아라.”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눈을 들어 교차로 한가운데에 있는 벤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앉았다. 3분 후,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서 익숙한 하얀색과 빨간색 상의가 어른거리더니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리의 여행 가이드였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기뻐고, 나는 가이드를 거의 안을 뻔했다.

“너를 한 시간 동안 찾아다녔어!” 그녀가 말했다. “어디 있었던 거니?”

그녀를 따라 다시 일행들에게 돌아가면서, 나는 일행과 떨어졌던 일부러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대신 앉아 있기로 결정했을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설명했다.

“운이 정말 좋았구나.” 그녀가 말했다. “만약 네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나머지 일행이 있는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을 거야. 베이징은 정말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너를 결코 찾을 수 없었겠지.”

나는 여행 중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고, 몇 주 뒤에 중국을 떠났다. 나는 나에게 속삭이는 영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때를 여러 번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내가 전에 느꼈던 영의 느낌과는 다른 종류였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다. 나는 또한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무도 쉽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게 신체적, 영적 위험을 경고하는 영의 목소리를 여러 번, 여러 다른 방식으로 들었다. 때때로 그 목소리에 따르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결과를 보기도 했다. 내가 자금성에서 겪었던 그 첫째 날에 그랬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더 많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꺼이 듣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영의 지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배웠다. 그분과 함께이기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조셉 스미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계시

라이언 카
교회 잡지

모든 문경 번역, 교회 조직, 신권을 받는 일, 성전 건축,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과 같이 조셉 스미스가 성취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라.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이 일들을 그처럼 젊은 나이에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가? 다행히도 그는 어렵짐작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계시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그에게 교리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인도하셨으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셨다. 그러한 계시의 상당 부분은 현재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계시를 통해 응답된 질문들

- 누가 침례를 베풀 권세를 가지는가? 1829년 5월 15일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에 관해 기도를 드렸다. 이에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명했다.(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 담배를 사용해도 되는가?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는 담배를 씹거나 피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1833년에 그는 이 주제에 관한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으며, 그 응답으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이름의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는 “담배는 ...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나온다.(교리와 성약 89편참조)

-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성전 사업을 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도 아래 교회 회원들은 커틀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침례 및 다른 성전 의식들을 집행했다. 교리와 성약 128편에는 “이는 그들(죽은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때때로 그 응답들은 경전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느껴지는 영감을 통해 올 수 있다. 또한 종종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필요한 영감과 인도를 찾는 데는 보통 시간이 걸린다. 선지자 조셉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울 수 있다.(교리와 성약 98:12)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찾아본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옳은지 여쭙는다.(교리와 성약 9편 참조)

시간을 두고 배움이 쌓이며

이 지도를 보면 조셉 스미스가 이 계시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계시는 조셉 스미스가 그것들이 필요했던 때와 장소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주



교리와 성약은 어떻게 계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인도했는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영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커틀랜드에서 46차례의 계시를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계속 인도를 받기 위해 그곳에 머무를 필요는 없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에서도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 계시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주어졌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가 신권에 관해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한 번에 계시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그 대신에 1829년, 1830년, 1832년, 1835년, 1841년 등등에

걸쳐서 선지자에게 신권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3편, 20편, 84편, 107편, 124편 참조)

여러분의 복음 지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할 것이다. 경전을 읽고, 연차 대회, 교회 모임, 세미나리 등에 참석하면서 성신의 도움으로 복음을 배울 때,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이해력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자라날 것이다. ■



조셉 스미스가 특정 장소에서 받은 계시가 담긴 교리와 성약 편



어린 나이에 이룬 성취

“[조셉 스미스]는 14세 때 첫번째 시현을 보았으며, 17세에 모로나이 천사의 첫 번째 방문을 받았습니다. 21세 때 금판을 받았으며, 23세 때는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몰몬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25세가 되기 전에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계시 중 절반 이상을 받았습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1쪽.



우리의
선택의지는
싸워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의지를 위한

전투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혼란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한 이웃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혹은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건네준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가 조금은 제한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정말로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죄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의로움에서 오는 축복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도 있다.

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로잡힘으로 이어진다. 사로잡힘이란 선택의지를 잃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면, 삶을 위한 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경전에서 사탄이 전세에서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모세서 4:3) 우리는 그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며,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교묘하게도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앗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로잡힌 상태의 삶

물론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제3니파이 18:15)

악마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은 무시무시하게 들린다!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상상할 때, 혹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에 한해서만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실, 이 사로잡힘은 더 가까운 곳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보통 그것은 상당히 인식하기 어렵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들은 해로운 중독성 물질뿐 아니라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롭고, 중독성 강한 철학이라는 속박에 예속되거나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속박에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예레미야애가: 속박을 조심하라”, 2013년 10월 연차 대회)

해로운 약물이나 니코틴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예속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습관에 예속되는 것은 어떠한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쉽게 스스로가 만든 덫에 걸릴 수 있다.

급한 성미나 험담하는 습관에 예속되는 것은 어떠한?

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일의 의로운 행위(기도, 경전 공부 등)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도 선택의지를 잃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다. 그것도 선택의지를 잃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연습을 완전히

그만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들은 최고의 실력으로 운동이나 음악을 할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선택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렇다. 실력을 열심히 갈고닦지 않는 운동선수나 음악가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만큼 많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실력이 감소함에 따라 그들은 이제 예전보다 적은 일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성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성신의 도움이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받고자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이다. 우리는 매일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그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물론경에서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이 머리 아래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머리가 없느니라.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모사이아서 5:8)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온다. 그러므로 부디 자유를 선택하기를! ■

우리들 공간



올바른 오답

내가 고등학교 철학 수업에 등록했을 때, 아버지는 다소 걱정을 하셨다.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진다. 선생님은 종교와 대척점을 이루는 것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을 가르치셨다.

한번은 철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린 왜 지상에 왔는가?” 내가 써야 할 정답은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믿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우리는 시험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그분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라고 썼다.

나중에 선생님은 나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시고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다. 나는 답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나에게 종교가 있는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를 물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그런 답을 쓴 학생은 여태껏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네가 쓴 것이 정답은 아니어서 만점을 줄 수는 없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네가 믿는 바를 적은 그 용기에 대한 점수는 주었다.”

나는 내 신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복음 진리에 따라 답했기 때문에 기뻐다. ■

벤자민 엠, 칠레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삶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참되고 충실하라”,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91쪽.

—

나는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가?

1.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15 참조)

2. 용기 있게 행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31:6; 교리와 성약 100:5~7 참조)

3. 신앙을 강화하도록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4.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 연습을 하기 위해 가정과 교회에서 자주 간증을 나누십시오. (교리와 성약 58:6 참조)

성전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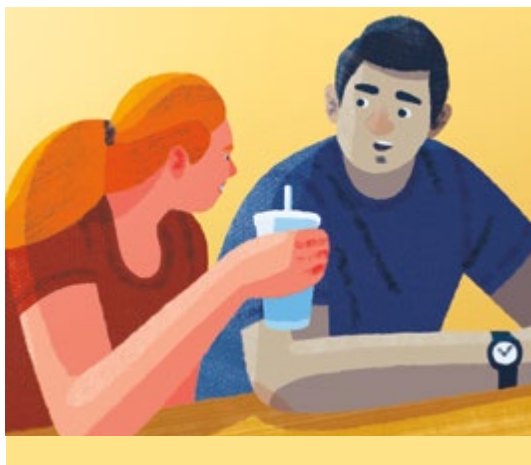
몇 해 전 여름에 우리 와드의 청남들은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갔다. 산악 자전거는 처음 타는 것이라 나는 조금 긴장이 되었다. 그래서 많이 타 본 친구 제이콥 가까이에서 타기로 했다.

정상에서 잠깐 휴식한 뒤, 우리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청남들보다 느렸고, 몇 차례 급회전을 하다가 번번이 넘어지는 바람에 뒤처지고 말았다. 제이콥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도와주려고 멈추었고, 우리는 무리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해가 졌을 때,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우리 일행은 이미 30분 전에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너무 어두워져서 길도 간신히 볼 수 있을 지경이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런 후 나는 제이콥과 함께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자, 가장 찬란하고 반가운 정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유타 트레이퍼 성전이였다! 성전에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 주었고,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성전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과 평온함을 떠올린다. 내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성전을 보며 내게 필요한 빛을 찾을 수 있다. ■

조엘 지, 미국 유타주



새로운 친구 사귀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데 마이클이라는 새로운 아이가 눈에 띄었다. 마이클은 나이가 더 많은 소년들 옆에 앉았고, 그들은 마이클을 놀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마이클에게는 자폐증이 있었다.

나는 마이클에게 나와 내 친구들 옆에 앉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거절했다. 아마 사람들이 놀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내 친구들에게 마이클을 소개했다. 마이클은 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말 굉장한 아이였다!

날마다 마이클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갔다. 마이클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곧 의미 있는 우정을 쌓아 갔다. 그것은 마이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얻는 느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정 중 하나이다. ■

로라 피, 미국 일리노이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최소한의 참된 신앙을
행사할 때, 인생은

신앙, 기쁨,

행복, 소망,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밸러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2018년 4월 연차 대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넬슨 회장님이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셨을 때, 저는 제가 이 책임을 맡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말씀과 부드러운 눈빛을 통해 저를 감싸 안아 주는 듯한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따르려 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으로 위안을 줍니다. 선지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그분들께서 주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저는 선지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지상 사명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돌아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행사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덜 복잡해지며, 어려움과 문제점을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우리 주위로 영적 보호막이 형성되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 계시고,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통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구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승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201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1958년 10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생.

그가 여섯 살이었을 때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이 선교부에서
아내를 만남)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



상파울루
교황
가톨릭
대학교에서
수학학(회계학
및 경제학 학사
학위, 경영학
석사 학위).

1982년 10월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로잔나
페르난데스와
결혼. 세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주가 있음.



모국어인 포르투갈어
외에도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구사.

2018년 3월 31일에
사도로 지지받음.



돌보고 나누며

Malo e
lelei!

저는 루이예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저의 빛을 비춥니다.

큰 섬과 대가족

저는 통가에 있는 한 큰 섬에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여섯
명의 자매와 네 명의 형제가
있어요. 저희 집은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근처에 있어요.

1



3

음식을 나눔

저의 아버지가 농작물을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집에는 먹을 게 풍족해요.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신 아주머니들과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우리 식량을 조금씩 그분들과 나누세요. 저는 같이 가서 그 일을 돕는 걸 정말 좋아해요!



2

과학이 제일 좋아요.

우리 섬에는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이 많아요. 저는 오션 오브 라이트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4

**코코넛 껍질로 도움을 줌**

남편과 사별하신 아주머니들은 요리를 할 때 코코넛 껍질을 땀감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음식을 드리러 갈 때면, 저는 항상 부모님께 코코넛 껍질도 함께 가져가자고 말씀드려요. 저는 불 피우는 것을 도와드리는 걸 좋아해요!

**타인을 도울 때 받는 축복**

제가 누군가를 도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큰 축복을 내려 주세요. 돈으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주시죠.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세요.
- 지역 푸드 뱅크에 식품을 기부하세요.
- 노숙자 쉼터에 의복을 기부하세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셨어요.(마태복음 5:16)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별 사진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아서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응답된 기도

메건 암네히트

실화에 근거함

제2차 세계 대전 시절, 네덜란드에는 그레이스라는 11살 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레이스의 아빠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셨어요.

아빠가 잡혀가신 후, 엄마는 삼 남매와 조카 두 명을 혼자서 돌보았어요. 그렇게 식구들이 많아서, 음식은 언제나 부족했어요. 집에는 밀가루와 채소, 감자가 정말 조금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레이스는 누구인지 보려고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젊은 나치 장교가 서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그레이스는 숨을 죽였어요. 그는 이곳에 왜 온 것일까요?

“이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지?” 나치 장교는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어요.

“저와 저의 세 아이들, 그리고 조카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남편은 없나?”

“없습니다. 제 남편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장교는 집을 둘러보았어요. “라디오를 갖고 있나? 영국과 미국은 우리의 적이야. 그들의 방송을 듣는 건 곤란한단 말이지.”

그 말에 엄마는 라디오를 가져다가 그 장교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집은 꽤 크군.” 그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집이 너무 커. 내일까지 집을

비워야 할 거야.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쓰겠다.” 그는 책 몸을 돌려 당찬 발걸음으로 가 버렸어요.

그레이스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레이스는 충격을 받아 휘둥그레진 엄마의 두 눈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문을 닫은 뒤 집 뒤쪽으로 곧장 가셨어요.

그레이스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그 군인이 정말

다시 와서 라디오처럼 그레이스의 집도

뺏어 가고 말까요? 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아빠는 이제

가족의 행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는 엄마의 방 문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레이스는 엄마가 다시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응접실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레이스가 물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밖에 없단다.”

그 젊은 나치 장교는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레이스와 가족들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봐 주고 계셨어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글쓴이는 미국 뉴저지주에 산다.





“구주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8]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진실됨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1쪽.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잠언 1:33)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저희 집 선반에는 늘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그 성경책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책을 자주 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림과 이야기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아와 홍수, 그리고 동물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준 부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왔고,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정의 밤 시간에 제 아내 르네는 노아의 방주와 우리의 가정이 여러 면에서 어떻게

비슷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방주와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무서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저는 노아에 대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불과 10세에 신권을 받았습니니다. 노아는 성장하면서 세상의 온갖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안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가 한 것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영적인 피난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가 오더라도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

몰몬경 독서 모임

몰몬경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서 읽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읽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있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몬경에서 배우게 된 점이나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은 liahona.lds.org를 통해 제출해 주세요. (“기사 제출” 클릭)

이달의 성구: 모사이야서 2장 17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나라.]”



저는 물몬경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참되기 때문이에요. 물몬경은 하나님이 주신 경전이에요. 저는 물몬경을 믿어요.

조엘 에스(오른쪽), 8세, 인도 마하라슈트라



저는 리하이의 시현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리하이의 시현 이야기는 선한 선택을 통해서 제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지요. 생명나무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상징해요.

세یدی 에스, 9세, 잠비아 루사카



저는 침례받기 전에 어린이용 물몬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었을 때, 엄마는 물몬경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물몬경을 읽으면서 이미 그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션 아이, 7세, 잉글랜드 서머셋



프랑스 일드프랑스에 있는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매일 물몬경을 읽으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어린이들은 그 목표를 이루고 인증서도 받았지요!



우리는 물몬경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 책에서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몬경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요. 물몬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사실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알피와 애나 비, 6세와 8세, 인도 마하라슈트라



물몬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는 니파이의 모범을 정말 좋아해요. 물몬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니파이는 제게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니파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 순종했어요. 저도 니파이처럼 되고 싶어요.

제트로 에프, 10세, 필리핀 일로일로



무대 뒤에서 드린 기도



에밀리 비, 12세, 미국 유타주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아일랜드 전통 춤을 추는 거예요. 공연에 오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해요. 아주 철저히 연습하기는 하지만, 정작 공연을 하러 무대 뒤에 설 때면 마음이 너무 떨려서 안절부절못해요. 그래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요. 무대의 커튼 뒤나 무대 옆 공간에서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지난 공연 때는 엄마 없이 혼자서 기도를 드렸어요. 엄마는 객석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긴장감에 마음이 무척 불안했지만, 엄마가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춤을 추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구했죠. 그날 저는 꽤 잘 해냈어요. 무대로 걸어 올라갈 때 제 가슴에서 느껴졌던 그 평화로운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



크리스티안 비, 7세, 네덜란드 노스홀란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읽기와 쓰기를 함께 공부하는 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만 실수를 했다는 거였어요.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주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좋아하며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매주 교회에 가고 초등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해 많이 배운다고 말해 주었지요.

그날 밤, 그 친구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드리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친구의 엄마는 그러자고 하셨고요!

돌아온 일요일에 제 친구는 성찬식 모임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제 친구는 거의 매주 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해요. 제 친구의 가족은 선교사들과 와드의 다른 가족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제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요. 제 친구의 가족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든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예요! ■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와 과부

김 웹 리드



선지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식물도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근 동안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통해 그에게 음식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냇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성을 찾았을 때,
그녀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약간의 밀가루와 기름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는 음식을 나누어 준다면
앞으로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과부는 신앙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과부의 집에는 날마다
가족이 먹을 만큼 음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를 다시 살려
냈습니다. 그 여성은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축복을 받습니다. ■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마크 이
피터슨(1900~198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살아 있는 선지자의 인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집자 주: 1972년 7월, 교회의 10대 회장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서거한 후, 197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회장이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다음은 그 연차 대회에서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말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하 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는 ...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일련의

영감받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성역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줍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임명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주님께서서는 지상에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백성을 두실 때마다 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하늘의 지도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

이처럼 일련의 영감받은 사람들은 현대에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기의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주님은 소통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예지의 하나님이시고, 지식과 정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다루지 않으시며, 무지한 자를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전반은 사실 깨우친 사람들과의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무지한 상태로만 있다면 어떻게 지적으로 깨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인간은 주님의 방법을 더디게 배웁니다. 특히 주님께서 기꺼이 소통하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지체할 때, 주님께서서는 선지자로 지명된, 즉 영감을 받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화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방법도 그러합니다. ...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이 우리 시대에 재확립되었음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장님이 아니시며,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귀먹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병어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선지자들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Another Prophet Now Has Come!", Ensign, Jan. 1973, 116-18에서 발췌. 구두점 및 대문자는 수정하였다.